

碩士學位 請求論文

統一新羅時代 石造佛像 製作技法에 대한 研究
-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을 中心으로 -

慶州大學校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定 華

指導教授 鄭 炳 模

2001.12
2001.12

統一新羅時代
石造佛像
製作技法에
대한 研究

金
定
華

統一新羅時代 石造佛像 製作技法에 대한 研究
-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을 中心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定 華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教授 鄭 炳 模

2001年 12月

목 차

Abstract

I. 序論	1
1. 問題提起	1
2. 研究史	3
3. 研究方法	4
II.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에 나타난 別造製作技法	8
1.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의 특징	8
(1) 서면 아미타삼존불상	11
(2) 동면 약사여래불상	13
(3) 남면 불·보살상	14
(4) 북면	16
2. 西面 阿彌陀三尊佛像의 製作技法	18
(1) 본존불 頭部の 제작기법	19
(2) 관음보살상 보관의 별조제작기법	19
(3) 세지보살상 보관의 별조제작기법	20
III. 7세기 石造佛像의 一造 製作技法	22
1. 三尊佛 및 四面 石造佛像의 製作技法	22
IV. 8세기 石造佛像의 別造製作技法	25
(1) 남산 냉곡 석조여래불좌상	28
(2) 남산 용장계 석조여래불좌상	29
(3)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불좌상	31
(4) 사암제 석조여래불입상	33
(5) 북부동 출토 석조여래불입상	35
(6)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불입상	36

V. 9세기 이후 別造製作技法의 展開	39
(1) 남산 약수곡 마애대불	40
(2) 예천 동본동 석조여래불입상	42
(3) 남산 용장계 약사여래불좌상	43
(4) 분황사 출토 석조여래불좌상	44
(5) 분황사 출조 약사여래불좌상	45
(6) 국립 경북대학교 박물관 비로자나불좌상	46
(7) 선산 산동초등학교 석조여래불좌상	48
(8) 국립 대구박물관 박물관 석조여래불좌상	49
(9) 고령 지산동 석조여래불좌상 및 석조비로자나불좌상	50
(10)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상	52
(11) 안동 이천동 마애석불입상	53
(12)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54
(13) 파주 용미리 마애석불입상	56
VI. 結論	58
참고문헌	62
도판	

도판목록

- 圖1. 국립경주박물관정원 頭部가 훼손된 석조불상.
圖2. 1915年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굴불사지 사면석불상.
圖3. 1986年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 현장.
圖4. 굴불사지 사면석불상 전경.
圖5. 1985年 발굴당시 出土된 유물.
圖6. 1985년 발굴당시 出土된 瓦片.
圖7-1. 중국 운강석굴 사면석불상.
圖7-2. 중국 공현석굴 사면석불상.
圖8. 서면 아미타삼존불상.
圖9. 서면 아미타삼존불상 본존 頭部.
圖10-1 서면 관음보살상.
圖10-2 관음보살상 축.
圖11. 관음보살상.
圖12-1. 선도산 아미타삼존불상.
圖12-2. 선도산 아미타삼존불상 좌측 관음보살상.
圖13. 남산 탑곡 신인사 석조여래불 입상.
圖14. 경북 예천 동본동 미륵불 입상.
圖15. 서면 아미타삼존불 좌측 관음보살상 수발조각.
圖16. 3등분으로 별조 제작된 관음보살상.
圖17. 1915년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세지보살상.
圖18-1. 관음보살상 보관.
圖18-2. 세지보살상 보관.
圖19. 동면 약사여래불상.
圖20. 남면 석가삼존불상.
圖21. 대좌 결구.
圖22-1. 중국 천룡산 석굴 떼어간 불상.
圖22-2. 중국 천룡산 석굴 떼어간 사천왕상.

- 圖23. 정으로 쪼아 훼손된 흔적.
- 圖24. 조각당시 표현된 천의 자락조각 흔적.
- 圖25-1. 1985년 발굴당시 수습된 佛具.
- 圖25-2. 1985년 발굴당시 수습된 금동여래입상.
- 圖25-3. 1985년 발굴당시 수습된 동전.
- 圖26. 북면 2구의 보살상.
- 圖27. 북면 11面 6臂 관음보살상 정병.
- 圖28.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리원관).
- 圖29. 화강암을 떼어내기 위해 썰기로 박은 자국.
- 圖30. 결구된 관음보살상 보관.
- 圖31. 2001년 3월 보수당시 확인된 관음보살상 보관.
- 圖32. 팔공산 군위 아미타삼존불상.
- 圖33. 삼화령 석조미륵삼존불상.
- 圖34. 남산 배리삼채불상.
- 圖35-1. 충남 예산 풍산면 화전리 사면석불상(서면).
- 圖35-2. 충남 예산 풍산면 화전리 사면석불상(남면).
- 圖36-1. 인더스문명 탄생당시 조각된 신상 결구.
(인도 석회암제 남성 토로소상 인도국립박물관소장).
- 圖36-2. 석회암제 남성 토로소상(인도 국립박물관 소장).
- 圖37. 인도 쿠사나시대 보살상 결구.
- 圖38. 중국 용문석굴 동산 보관불상.
- 圖39-1. 국립경주박물관전시 砂岩製 석조여래입상(정면).
- 圖39-2. 국립중앙박물관전시 砂岩製 석조여래입상(측면).
- 圖40. 영주 신암리 사면석불상.
- 圖41. 남산 칠불암 사면석불상.
- 圖42. 국립대구박물관소장 석조여래불좌상.
- 圖43. 9세기 3층석탑(예천 동본동).
- 圖44. 남산 냉곡 석조여래불좌상.
- 圖45. 이천동 마애석불상 頭部결구.

圖46-1 경주 강동면 안계리사지 석조여래불좌상.

圖46-2 경주 강동면 안계리사지 석조여래불좌상.

(영덩이 밑 부분 佛具봉안 자리)

圖47-1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보관.

圖47-2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보관 축.

A Study on the Carving Craft of Stone Buddhist Statues during the Period of Unification of Silla - Focusing on the Buddhist Statues on the Four Sides of the Gulbul Temple Sites -

Kim, Jung hwa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Ky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ŏng, Pyŏng Mo)

(Abstract)

When we visit the museums or ruined temple sites, we can often meet headless Buddhist statues though their bodies are remaining relatively well. The academic circles have explained that many Buddhist statues were damaged and particularly the heads were cut off by Mongolian invasion in 1238,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in particular by the policy of respecting Confucianism and inhibiting Buddhism during the period of Choseon(Korea). And as these explanations agree with the records concerned to some extent, they have been believed to be very persuasive. Of course admitting the premise that many Buddhist statues were damaged by many kinds of wars such as Mongolian invasion, why particularly the heads were cut off has not been fully explained

so far.

The author came to pay attention to this point and has observed closely the stone Buddhist statues made after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and surprisingly found that the craft of carving parts of Buddhist statues separately appeared. That is, the head, the body, the mandoria, and the pedestal were made separately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they were assembled into a Buddhist statu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Amitahha Samjon(three Buddhist images) on the southern side of the stone Buddhist statues on the four sides, the head was constructed by whittling points on the rock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body and in the case of Gwaneum (the Goddess of Mercy and Seji(The Bodhisattva of Wisdom), both the Bodhisattvas serving the principal image on the right and left sides, the crown was constructed by the points artificially whittled in the forms of topknots.

These kinds of construction were found to have been actively adopted by the Buddhist statues on Mt. Namsan, which is also called Park of Sculpture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great rock cliff Buddha, the way to construct the head by using the iron cores after the points was discovered. That is, two ways of construction using points and iron cores came to appear almost at the same time.

And it was found that as the seated statues on the pedestals of Hangmachokjiin(the ways defeating devils with hands and fingers), Yaksayeore Buddha, and Jigweonin(the ways of teaching with fingers) came to appear, the craft of carving the parts separately was prospering as before and iron cores were found to be used more than points in constructing the heads. Of course, all of the Buddhist statues of our country were not made by the craft of carving the parts separately, but the investigation of some of the headless buddhist statues led the author to this conclusion. Accordingly, as the ways to construct the head by using points and iron cores spread all through the country, the craft of carving was mainly applied to the huge images of Buddha with the beginning of Koryo. And the author has found that, particularly in our

country, the craft of carving the parts separately has been inherited till recently. For even in the 1970s, the statues made by the craft of carving the parts separately were exported to Japan and other countries. Accordingl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ways of construction shown in the statues on the four sides of Gulbul temple sites was inherited from the period of Unification of Silla to the period of Choseon(Korea).

I. 序論

印度에서 발생한 佛敎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中國에 들어온 것은 기원1세기경이며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4세기 후반 무렵이다. 때로는 불교가 지나친 정치적 참여로 인해 社會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퇴락하는 길을 걷기도 했고¹⁾ 또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교는 이를 신봉하는 국민들의 국태민안과 자비의 信心으로 불교가 다시 융성, 정신적인 지주로 우리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예배의 대상인 佛像이 만들어지고 그 대상을 예경하는 신봉자들은 내세의 유복은 물론 나아가 영생불멸을 갈망하며 西方世界로의 환생을 염원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佛像이 가지는 내면적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불상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소중히 지켜온 文化遺産인 만큼, 기념비적인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존하는 많은 불상들에 관한 研究는 美術史의 어느 분야 못지 않게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연구논문 또한 적지 않다. 그 결과로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양식이나 편년이 거의 밝혀졌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근래 이 時代의 불교조각논문은 그다지 새롭게 발표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1. 問題提起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심층적으로 研究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미해결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석조불상의 조각기법에 관한 것이다. 國立博物館 庭園이나, 폐사지, 또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일대를 살펴보면 훼손된 많은 석조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상의 신체부위 등은 완벽하게 남아 있는 반면, 頭部를 잃고 있다든지, 또는 목 부분이 부러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圖1) 그 원인

1) 진홍섭,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76. p.26.

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몽고군 내습과 임진왜란 등의 전란, 그리고 조선시대 억불 정책²⁾과 일제식민지 시대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많은 불상들이 통상적으로 수모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주장은 관련 기록과도 어느 정도 부합되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몽고군 침입 등의 전란과 억불정책에 의해 많은 불상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도, 특히 목 부분이 잘려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납득 할 만한 어떠한 說明도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은 이 부분을 주목하며 8세기중반 이후부터 조성된 석조불교조각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놀랍게도 ‘別造製作技法’이 등장함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본존의 두부와 신체·광배·대좌를 각각 따로 만든 다음 각 부분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석상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掘佛寺址 西面 阿彌陀三尊 本尊佛의 경우 신체로 삼은 암반 위에 축을 만들어 두부를 結構했는가 하면, 좌 협시인 관음보살도 인위적으로 깎은 상투모양의 축을 마련해 그 위에 보관을 올려놓은 일명. 상투식 결구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좌 협시인 세지보살상도 복원시켜 놓은 현재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얼굴은 없어졌으나 三道 위에 보관만 올려놓고 있어 관음과 마찬가지로 보관을 따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별조제작방식은 시기적으로 앞선 作品에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것이며 조각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만큼 주목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남면 삼존불 중 떼어진 우측 보살상에 대한 구체적 적인 언급과 함께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별조제작기법의 시원은 현존 예로 볼 때 굴불사 사면석불상 중 서면 아미타삼존의 본존 상호와 협시보살인 관음과 세지보살의 보관이며 이와 같은 특이한 기법은 8세기 중반이후부터 많은 作品에 폭 넓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축을 사용해 결구하는 방식이 여전히 적용되었지만 鐵心을 사용하여 몸체와 두부를 결구 하는 방식도 찾을 수 있다.³⁾

2) 文明大 교수는 抑佛政策에 대해 朝鮮초기이전에는 國民의 대다수가 佛教信者들이기 때문에 감히 佛教를 탄압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으나, 朝鮮초기에 접어들면서부터 抑佛政策이 풍미하면서 당시 王들은 佛教를 타파해야하는 권력의 상징이 됐고, 특히 선비들까지 가세하면서 승려들을 몰아내고 때로는 官廳의 노예로 삼는 등 많은 寺刹과 승려들이 受難을 당했다고 언급한바 있다.

본 論文은 굴불사 조각상에서 보이는 별조제작기법에 주목하여 그 현상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통일신라시대 석조불교조각의 제작기법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고 나아가 불교조각사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2. 研究史

굴불사지는 일본인 關野貞이 1909年 7월에 보고된 『東洋學會調查部 學術報告 第1冊』에서 처음 이를 언급했고 다시 1941년에 간행된 『朝鮮の 建築と 藝術』에 “掘佛寺石佛”이라는 제목으로 앞서의 내용을 재 수록하였다.⁴⁾ 따라서 굴불사지와 석불에 관하여는 1910년 전후시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1917년 3월에 간행된 『朝鮮古蹟圖譜』 第5冊에서도 사면불의 노출된 상태의 사진이 실려있고(圖2) 해설편 서언에는 關野貞과 谷井濟一이 조사한 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⁵⁾ 뒤 이어 1985년에는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查團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전면발굴이 실시되어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圖3) 발굴보고서에는 사면석불이 매몰된 상태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는 今西龍 선생에 의해 조사할 당시 반쯤 묻혀 있던 것을 파내어 조사한 모습이라고 한다.

한편 보물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는 굴불사지 석불상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 고찰은 김리나교수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⁶⁾ 이 논고에서는 굴불사지 사면석불 각면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일본, 중국불교조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상적, 양식적 특징을 굴불사지 사면석불상과 비교하면서 당시 조각양식의 공통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조각기법에 있어 일률성이 결여된 조각수법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 책임자 밑에서 여럿이 분담하여 조각했거나 아니면

3) 축을 이용한 結構 方式이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에서 나타난 이후의 일부 佛像에서는 鐵心를 연결해 頭部를 結構하는 方式이 등장하면서 주로 坐像佛상에 많이 적용된 것 같다.

4)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查團, 『掘佛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1986.

5) 1917年 3월에 刊行된 『朝鮮古蹟圖譜 第五冊』에는 四面石佛이 노출된 상태로 사진이 실려 있고 解說편의 序言에는 關野貞과 谷井濟一이 調査한 內容이라 기록되어 있어 1917년 이전에 일부 調査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今西龍이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調査한 해는 1909年 7월이전에 이루어졌음이 짐작된다.

6) 金理那, 『慶州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39집 1975. 4.

한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각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사면에 조각된 불상들은 일정한 經典에 의해 표현되었다기보다는 당시 신라의 顯敎佛敎思想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문명대교수 역시 사면의 불상은 모두가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져 제각기 다른 조각가에 의해 조성된 것 같은 느낌을 강조했다. 나아가 의습이 얇게 빛은 듯 하면서 세련된 표현이 인도 굽타기의 불상과 닮고 있다는 점과 북면 보살입상의 경우 얼굴이 소녀 같은 앳된 얼굴에 얇은 의습 속에 드러난 아름다운 굴곡진 육체미가 굽타기의 “사라나스” 보살상을 신라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⁷⁾ 따라서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은 인도·중국불상의 양식이 신라조각에 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우방교수는 사면석불 중 사면의 불·보살상들의 양식과 크기에 대해 서면과 동면은 우람하고 생경한데 비해 남면과 북면은 크기가 매우 작아 “중국의 성당양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동,서 사면의 조각양식은 남,북 면의 조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명 한 시기에 조성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⁸⁾

이 밖에 굴불사지 사면석불에 관하여 진홍섭 선생과 이순자 여사도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존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굴불사지 사면석불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은 실제로 김리나 교수의 논고가 유일한 것으로, 작품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비해 실제연구성과는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튼 김리나교수의 논고는 양식규명은 물론, 섬세한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어 조각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⁹⁾

3. 研究方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존하고 있는 석불상들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進行되어 왔고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본인은 양식적인 접근보다는 별조제각기법에 주목하여 이번 논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 양상과 전개과정을 밝혀

7)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p.199.

8) 姜友邦, 『韓國 佛敎彫刻의 흐름』, 대원사, 1999, p.288.

9) 金理那 『韓國古代佛敎彫刻史研究』, 일조각, p.1988.

보려고 했지만 당시 제작자 집단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¹⁰⁾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석공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진흙을 빚어 靈廟寺의 丈六像만든 양지를 들 수가 있겠다.¹¹⁾ 그러나 ‘良志’는 석불상 보다는 진흙을 이용해 주존불을 비롯 보살상, 신장상 등을 조각했고¹²⁾ 특히 석장사에서 출토된 緣起法領銘 塔像紋塼과 부조고행상 등의 조각수법은 인도 간다라지역 불탑에서 보이는 부조상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아 ‘良志’조각의 서역적 요소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보고 있다.¹³⁾ 그러나 본인은 문헌에 나타난 기록보다는 현장답사를 통해 실측과 함께 조각기법을 섬세하게 관찰, 분석하고 또한 유물과 관련된 사진자료 책자 등을 적극 活用하여 당시 조형정신을 밝히고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두부가 탈락된 불상에 대해서는 흙의 너비, 지름, 각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대좌 결구에도 철심을 사용하였다는 것까지도 밝힐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수 십년 동안 경주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는 석 공예 장인들을 직접 방문하고 조각기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한편 두부가 탈락된 불상들을 대상으로 철심을 사용해 당시 별조제작기법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동경과 홋카이도 등지로 불상을 수출하면서 두부·신부·광배·대좌 등을 각각 따로 조각해 납품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¹⁴⁾ 즉, 통일 전승기에 나타나는 별조제작기법이 최근까지도 계승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10) 姜友邦 교수는 통일기 초기에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소조의 명수인 ‘良志’가 알려져 있고, 중기에 접어들어서는 분황사의 금동약사여래불을 만든 ‘强古乃末’의 이름만 언급되어 있을 뿐 당시 石工들에 대한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강우방, 앞의 책, p.383.

11) 三國遺事, 『을류문화사』, 이민수, p.383.

12) 선덕왕 때부터 문무왕 때까지 良志는 다방면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일종의 僧將으로 이름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글씨 또한 잘 썼다고 한다. 특히 그는 靈廟寺의 丈六三尊. 天王像. 전탑의 기와. 天王寺塔 하단의 八部神將像 등을 良志가 만든 것으로 三國遺事에서는 전하고 있다. 朴南守, 『新羅手工業史』, 新書苑, 1996, p.248.

13) 張忠植, 『錫杖寺址 出土遺物과 釋良志의 彫刻遺風』, 『新羅文化』 3.4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87. pp.87-101.

14) 30年 동안 慶州지역에서 活動중인 윤만걸씨(大韓民國 石工藝匠人)에 의하면 70년대까지만해도 慶州에서 제작된 石佛像들이 우수해 日本과 홋카이도 등지로 輸出되면서 身體부위를 각각 따로 彫刻해 납품을 해 왔다. 특히 옷 주름을 표현할 때는 전문 匠人에 맡겨져 彫刻을 해 왔으나 최근엔 중국산에 밀려서인지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다.



① 몸체에 홈을 판다.



② 몸체에 철심을 꽂는다.



③ 머리밑부분에 홈을 판다.



④ 머리와 몸체를 맞춘다.



⑤ 접합된 부위를 접착제를 이용해 마감처리를 한다.



⑥ 완성된 모습

插圖1. 頭部結構方式實例

따라서 불상은 불교교리와 신앙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종교적인 예배의대상
이므로 불상조각에도 엄격한 규율아래 정연하게 조성이 되었던 만큼 8세기 중반
축과 철심 이용한 결구방식은 불상조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됐다.

한편 불교조각이 흥성한 8세기경에 제작된 불상들의 두부결구 각도는 대체적으
로 20-30°를 유지하고 있었고, 흙의 깊이도 거의 10cm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
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불상의 규모도 비교적 축소되고
두부결구의 각도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띄는 등 대부분이 8-10°를 유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II.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에 나타난 別造製作技法

1.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의 特徵

사면석불상이 있는 굴불사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 동천동 산4번지 국립공원 소금강산 남쪽 栢栗寺로 오르는 좌측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면석불상은 약3m 높이에 달하는 자연암석을 다듬은 사면에 모두 9구의 불·보살상이 원각·선각·부조 등 다양한 조각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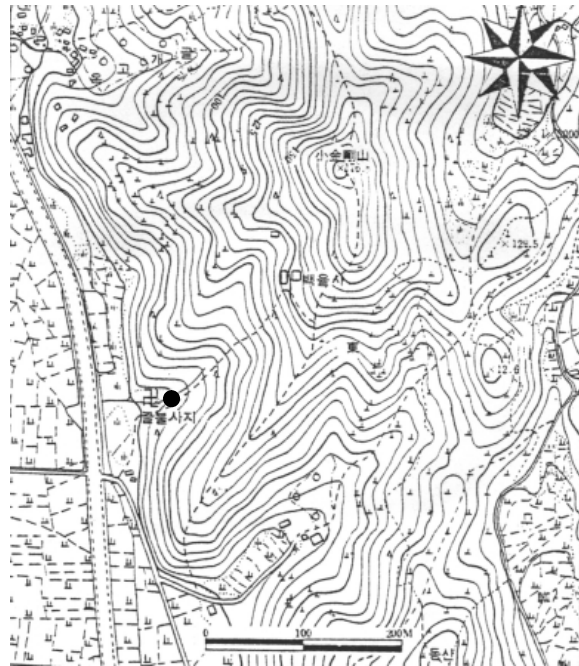


插圖2. 掘佛寺址 位置圖(『掘佛寺址 發掘報告書』에서 轉載)

즉 사면석불은 고대석굴사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인도의 석굴에서는 말굽형으로 파 들어간 사원안쪽에 탑 또는 불상을 새긴 탑을 안치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중국의 돈황석굴과 운강석굴 등지에서는 사방에 불상을 새긴 石柱로 형식이 변모하게 된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굴불사지(寶物121號)는 신라 제35대 景德王(742-765年)이 백
 릉사로 행차도중 山 밑에 이르렀을 때 땅속에서 염불소리가 나서 그 곳을 파보게
 하니 사방에 불·보살이 새겨진 큰 돌이 나옴에 따라 이곳에 절을 세운 뒤 寺名
 을 掘佛寺로 명명했다는 유명한 전설을 갖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찰로 전해지
 고 있다.¹⁵⁾(圖4)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지는 1910년 이전 일본인에 의해 최초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發掘은 1981년 5月 國立慶州博物館 佛蹟調查事
 業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어 2차 발굴은 1985년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查
 團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본 사지에 대한 전모가 밝혀졌다.¹⁶⁾ 이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소형금동여래입상과 청동종, 불구, 와편 등 400여 점의 유물들
 이¹⁷⁾ 출토됐고(圖5) 조선시대의 유구로 짐작되는 남향을 한 정면3칸 측면3칸의
 건물지가 확인됐다.¹⁸⁾ 즉, 조선시대 이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 또는 중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기와 편 유물 중에는 불상
 편과 조로 2年(680)안압지 출토 쌍록보상화문(圖6)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¹⁹⁾ 8
 세기 중엽이전에 이미 불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불상의 양식은 대체적
 으로 8세기 중반의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다. 만약 기와의 편년을 따른다면 사면
 석불상의 실제 조성 년대는 下限인 742년 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짙다.

한편 불상이 새겨진 사면석주는 발굴 전까지는 현장에 있던 자연암반을 그대
 로 활용하여 불상을 새긴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발굴조사결과 인위적으로 이곳으
 로 옮겨온 뒤 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²⁰⁾

현재 서면에는 서방극락세계에 주재하고 있는 아미타삼존불상을 비롯 동면의
 약사여래상, 남면에는 여래와 보살상 2구가, 북면에는 11面6臂 관음보살상과 미륵
 보살로 추정되는 2구의 보살상이 각각 새겨져 있다. 그런데 굴불사지의 사면석불

15) 『삼국유사』, 卷 第3 塔像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景德王 遊辛栢栗寺 至山下 聞地
 中有唱佛經 命掘之 得大石 四面刻 四面佛 因創寺以佛爲號 令訛云掘石…….

16)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查團이 지난 1981年 5月 7일부터 6月 30일까지 55일간 1次
 發掘調査를 펼쳤고, 이어 2次 發掘은 1985年 8月 3일부터 10月 29일까지 3개월 간 실시
 한 發掘調査에서 掘佛寺址 四面石佛에 대한 全模가 밝혀졌다.

17) 文化財研究所 경주고적발굴조사단, 『굴불사 유적조사보고서』, 1986, pp.242-284.

18) 굴불사 발굴조사보고서, 앞 보고서, p.167.

19) 굴불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앞 보고서, p.258.

20) 굴불사 발굴조사보고서, 앞 보고서, p.175.

상은 조성당시에 사방불로 표현하려했던 의도가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방불개념 보다는 사면불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사방불은 동서남북에 군림하고 있는 부처를 의미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방불 신앙은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방불은 인도를 거쳐 중국북위시대-수까지 유행했고, 특히 중국의 석굴사원(龍門.雲岡.天龍山.)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圖7-1, 7-2) 사방불 신앙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전마다 여러의 명칭이 다르고 실제작품과 비교하여보아도 완전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²¹⁾

<表 1> 經典에 나타난 四方佛名(『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에서 轉載)

經 典	新修大藏經	東	西	南	北
阿 彌 陀 經	12卷 T.no. 366 p.347b,c.	阿閼(外 4佛)	無量壽 (外 6佛)	一月燈 (外 4佛)	燄肩(外 9佛)
法 華 經	9卷 T.no. 262 p.25b.c.	阿閼(須彌頂)	阿彌陀 (度一切)	虛空住(常滅)	雲自在 (雲自在王)
十住毘婆娑論	26卷 T.no. 1521	不思議不境界	阿彌陀	稱檀德	相 德
稱揚諸佛功德經	14卷 T.no. 434 pp.87~105	寶海 外 49佛	阿彌陀 外 2佛	日月燈明 外 35佛	德內豐嚴王 外 5佛
金光明經第一	14卷 T.no. 663 p.335b	阿 閼	無 量 壽	寶 相	徵 妙 聲
金光明最勝王經	14卷 T.no. 665 p.404a	阿 閼	阿 彌 陀	寶 相	天 鼓 音
觀佛三昧經第九	15卷 T.no. 643 p.689a	阿 閼	阿 彌 陀	寶 相	徵 妙 聲
佛 名 經	14卷 T.no. 440 p.185ab	阿閼 外 11佛	無量壽 外 11佛	普滿 外 11佛	難勝 外 9佛
孔 雀 王 呪 經	19卷 T.no.984	藥師琉璃光	無 量 壽	定 方	七 寶 堂
稱讚如來功德經	21卷 T.no.984	阿彌陀	寶 相	淨日堂	維 摩 詰

21) 김리나, 앞의 책, p.241.

經典	新修大藏經	東	西	南	北
略出念誦經	18卷 T.no.866	阿閼	阿彌陀	寶生	不空成就
大日經 卷第一 卷第五(胎藏界)	18卷 T.no.848 p.50 p.36c	寶幢 寶幢	無量壽 無量壽	大勤勇 開敷華王	不動 (天)鼓音
金剛頂經第一	18卷 T.no.865	阿閼(鞞)	阿彌陀	寶生	不空成就
大寶積經第58文 殊師利授記會	11卷 T.no.310	集吉祥王	磨尼積王	師子勇猛奮邊	婆羅起王
大乘大方 廣佛冠經	14卷 T.no.438 p.110a, 111c, 112a	定手最上吉 祥如來 外 2佛	大光明照 如來	無邊步跡 如來 外 2佛	寶開花普耀 吉祥如來
智炬陀羅尼經	21卷 T.no.1397	智炬如來	實悟如來	金光聚如來	雷音王如來

() 西面 阿彌陀三尊佛像

전체 9구의 불·보살상 가운데 조각에 가장 중점을 둔 곳은 바로 서면이다.(圖8)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 측에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협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도상이 아미타삼존불상임을 알 수 있다. 본존은 浮彫인 반면에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은 別石을 이용해 환조한 다음 본존의 좌우 측에 배치하여 입체감이 돋보이게 했다.²²⁾ 즉 사면불상조각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둔 것 같다. 본존 전체 높이는 360cm이며 암석자체를 신체로 삼았고 옷주름은 얇은 층단으로 표현했다. 두부는 암석상단에 축을 깎아 결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²³⁾(圖9) 이러한 조각방식은 후대에 이르러 경주남산지역 불상조각에도 그 흔적을 엿 볼 수 있었고, 이어 고려시대까지 계승되면서 충남 부여군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중원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경기도 과주군 용미리 마애석불입상 등 주로 마애불과 대불입상에 적용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서면 아미타본존의 별조제작방식이 효시가

22) 이러한 조각기법은 慶州仙桃山 阿彌陀三尊佛像이嚆矢가 된 것 같다. 이후 掘佛寺址 사면 석불상에서도 그의 동일 彫刻수법이 나타나는데, 즉 本尊의 身體는 자연암석바위에 다 그대로 새긴 뒤 양 협시보살은 本尊 좌·우측 자리를 정으로 쪼아내고 환조한 뒤 그 자리에 입체화 시켜놓았다.

23) 문화재관리청에서 2001년 3월경 사면 석불상에 대한 보수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觀音菩薩像 寶冠에 붙어있는 시멘트를 제거하는 도중 축을 깎아 寶冠을 結構해 놓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축을 끼우기 위해 寶冠 밑 바닥부분까지 움푹 판 흔적을 드러냈다.

되면서 이후 전국각지로 전파되어 일반적인 조각방법으로 정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본존의 두부는 장방형이며 육계가 우뚝 솟아 있고, 눈과 입이 마멸되어 있으나 얼굴 전체의 모습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새겨져 있고 오른팔은 가슴 쪽으로 올렸으나 손상이 심하여 정확한 形象을 알 수 없다. 왼 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가락을 꼬부리고 있으며 法衣는 통견이다. 가슴에는 엄액의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으며 균의를 묶은 띠 매듭이 음각의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U자 형태로 목걸이 밀려오는 듯이 층단을 이루고 있으며 臺座는 세부까지 치밀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나 불륨이 강한 7엽의 단판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본존에 이어 좌 협시인 관음보살상도 이마 윗 부분을 수평으로 다듬고 그곳에 축을 깎아 보관을 끼워놓았다.(圖10) 즉 본존불에서 나타나는 조각기법과 동일한 기법으로 製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좌도 別造 조각한 뒤 그 위에 身體를 올려놓은 것으로 보아 전체를 3등분으로 나누어 조각한 것으로 보아진다.²⁴⁾(圖11) 이러한 조각기법은 경주 선도산 아미타삼존불이 효시가 되면서(圖)12 이후 굴불사와 경주남산 탐곡여래입상(圖13) 경북 예천 동본동 미륵입상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圖14) 관음의 외모는 당당하고 강건한 기풍이 잘 드러나 있고 三掘자세에 크기가 무려 320cm에 달하는 거상이다. 코는 얼굴에 비해 비교적 크며 귀가 어깨선 밑으로까지 닿아 있고 수발이 어깨선까지 늘어뜨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圖15) 왼 손은 허리부분으로 내려뜨려 天衣를 살짝 쥐고 있으며 오른손은 어깨 높이 만큼 들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새겨져 있다. 목걸이 중앙에는 3개의 장신구가 새겨져 있고 어깨 부분에서 가슴을 가로질러 흘러내리는 天衣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다. 양 팔목엔 팔찌가, 요대 부분에도 목걸이에서 볼 수 있었던 장신구가 달린 영락장식이 보인다. U자형의 6단 옷주름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발목부분까지 도달해 있고 발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 발은 신체와 따로 조각되어 있고 무게에 눌려서 인지 좌측 방향으로 슬라이딩(sliding)현상이 일어나 약간 벌어져 있다.²⁵⁾(圖16)

24) 이러한 彫刻技法은 선도산 阿彌陀三尊의 觀音菩薩像에서도 같은 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頭部를 축을 깎아 結構하지는 않았다.

25)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에 의해 밝혀진 西面 左側의 觀音菩薩像의 足部는 別石을 이용해 結構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掘佛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p.162.

우 협시인 세지보살도 관음보살처럼²⁶⁾ 어떤 연유에서 파괴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3등분으로 파괴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 놓았는데 현재는 두부가 멸실 되고 목 위에 파손된 보관만 올려놓았다.(圖17) 그러나 조각수법은 좌측의 관음보살에 비해 훨씬 세련된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삼면보관은 좌 협시인 관음보살상의 보관조각과 그의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즉, 보관 좌우측에 새겨진 원형장식과 관대장식이 그의 同一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圖18-1, 18-2)

왼손은 손상이 심하여 뚜렷한 형상을 알 수 없으나 가슴 앞쪽으로 올렸는 것 같고, 손엔 연꽃을 들고 있는 듯 하다.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뜨려서 정병을 들고 있으며, 율동감 있게 처리된 옷 주름이 사실적이다. 특히 가슴부분에는 X자형으로 교차되게 걸쳐진 영락장식이 양쪽으로 갈라져 두 다리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古式인 본존의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인상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세련된 모습이다. 대좌는 관음보살처럼 별조하지않고 발끝부터 머리부분까지 一造를 한 뒤 보관만 따로 올려놓았음을 알 수 있다.²⁷⁾

() 東面 藥師如來佛像

결가부좌로 정면을 向한 여래의 왼손에는 원형의 지물을 들고 있는데 이를 약합으로 본다면 이 여래는 도상학적으로 약사여래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조각당시 바위 면을 가득 메운 여래의 얼굴부분은 비교적 높은 浮彫로 새겨져 있으나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線刻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 민 머리에 肉髻가 우뚝 솟아 있고 앞 가슴에 3가닥의 法衣 주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때 통견인 것 같고 얼굴은 약간 앞으로 숙인 채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눈썹은 옆으로 길게 새겼고 코는 脫落했으나 시멘트로 때워 놓았고 입술은 두툼한 편이다. 귀는 비교적 길어

26) 1994年 2월에 發行된 國立慶州博物館, 『다시 보는 慶州와 博物館』, 1994. p.75에 의하면 本尊의 頭部와 觀音勢至菩薩의 寶冠이 탈락된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勢至菩薩의 寶冠도 別彫해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27) 현재 圖像學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勢至菩薩의 彫刻技法은 左側의 觀音菩薩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律動的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觀音은 足部를 別石으로 彫刻해 結構한 반면 勢至菩薩은 寶冠만 따로 彫刻해 올려놓았을 뿐 한 개의 돌로 彫刻한 뒤 세련미를 한층 부각시켰다.

어깨선까지 닿아 있고 수인은 시무외인 한 것 같으나 가슴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구체적인 형상은 알 수 없고, 三道 또한 훼손으로 인해 탈락이 되었는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체부분은 얇은 浮彫로 조각돼 있어 아미타삼존에 비해 생동감이나 불림감이 결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두광과 신광에는 뚜렷한 화염문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역시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圖式的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圖19)

다시 말해 어깨 이하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조각이 낮으며 다리부분에 이르서는 선각에 가까울 정도로 평면적인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상하의 조각기법이 다르다는 것은 바위 윗면이 하단부에 비해 앞쪽으로 튀어 나와 있어 신체의 기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여래의 얼굴은 부조이나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선각에 가까운 조각수법은 노천박물관으로 불려지고 있는 경주남산냉골 마에여래대불에서도 상통하는 조각수법임을 볼 수 있다.

() 南面 佛·菩薩像

본존의 머리부분은 파손되어 없어지고 신체부위만 남아 있다.(圖20) 법의는 통견에 가슴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진 U자형의 주름이 배 부분에까지 표현되어 있고 다시 좌우대칭으로 Y자형으로 갈라지면서 대퇴부에서 무릎 쪽으로 흘러내린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마에불로서는 보기 드물게 암반하단에 인위적으로 앙련과 복련을 새겨 8각 대좌를 조성해 끼워놓은 모습이 특이하다. (圖21) 왼손은 팔을 굽혀 어깨 높이 만큼 들고 있으며 오른 손은 허리부분까지 내려뜨린 채 法衣를 살짝 쥐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불상을 일명 Udayana왕식²⁸⁾ 또는 감산사식 여래상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보살과 여래 2구의 불상만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두 가지견해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造成당시부터 불.보살 2구만 새겼다는 견해와 또 하나는 여래를 중심으로 三尊像이었으

28) Udayana식 : 가슴부분의 법의가 U자 形態로 對稱을 이루며 내려오다가 허리부분에 도달 해 Y자 形態로 갈라지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佛像이 감산사 阿彌陀如來立像(719년)을 들 수 있겠다. 한편 新羅의 佛像을 Asoka王式, Udayana王式 如來像으로 구분하여 처음사용한 학자는 Alexander C. Soper이다. 김리나, 앞의 책, p.253.

나 日帝때 떼어갔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조성당시에는 삼존불상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았다. 따라서 日帝때 떼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중국의 석굴조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의 천룡산 석굴의 경우 굴 전체가 약한 암질인 석회질로 형성돼 있어 특별한 技術이 없어도 예리한 정을 이용하면 조각들을 쉽게 떼어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복잡한 장신구가 달린 사천왕상까지도 떼어 반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석회질이라 마음만 먹으면 쉽게 떼어 낼 수 있다.²⁹⁾(圖2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 불상 대부분이 강도가 높은 화강암을 재료로 조각되어 있어 정으로 쪼을 경우 곁에 따라 조각조각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는 조각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우측 보살상 전체를 손상 없이 떼어내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훼손된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하·좌우로 길게 쪼은 정자국의 흔적이 확연히 나타나 있고, 특히 떨어져나간 중앙부분까지 정으로 쪼은 흔적을 볼 수 있다.(圖23) 이를 통해서 볼 때 우측 보살상은 떼어내 반출하려 했다가 보다는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한다면 조각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보살의 천의 옷자락이 길게 내려뜨려져 線刻으로 처리한 흔적까지 찾을 수 있었다.(圖24) 이러한 상기 내용들을 감안한다면 조성당시부터 납면은 삼존불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떼어갔다가 보다는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하면 왜 우측 보살만 완벽하게 파괴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 2구의 불·보살도 조각수법이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한쪽 보살만 고집해 훼손된 것에 대해 본인은 1238년 몽고군 침입당시에 굴불사도 약탈대상의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몽고병난 당시 山寺가 화염에 휩싸이고 승려들은 불가피하게 寺刹을 떠나야만 했고 이때 사찰에 이용된 모든 불구들은 땅에 묻고 떠나야만 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85년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에서 발굴조사를 펼친 결과, 당시 地下에서 승려들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金銅如來立像과 銅으로 주조된 小

29) 唐나라때 造成된 天龍山 石窟의 경우 西峰13窟, 動蜂8窟 등 총 21窟이 있으나 대부분의 佛像들이 盜掘로 일본, 미국, 스위스, 영국 등 해외로 밀반출 되어 비참하게 毀損되어 있다. 특히 石灰質이라 정을 이용 섬세한 부분까지 떼어간 흔적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形 鐘. 容器 등 수 많은 佛具들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약탈당시 사찰을 떠나면서 땅속에 묻어놓은 것으로 발굴조사단은 추정했다.³⁰⁾(圖25)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감안할 때 사면불상도 이 당시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분별한 무속행위로 인해 훼손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황수영 선생은 사면석불의 남면 상은 원래 삼존상으로 만든 것이지만 일제 때에 오른쪽 보살상은 완전히 떼어 가고 본존의 두부까지 떼어 간 참혹한 수난을 입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³¹⁾

남면의 좌 협시보살상역시 양각에 고 부조로서 本尊에 비하면 그의 완벽한 조각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마엔 관대로 보이는 띠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귀와 수발이 어깨선까지 닿아 있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으며 왼손은 밑으로 내려뜨려 손바닥을 正面을 향한 채 천의자락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다. U자형의 균의는 허리춤에서 발목까지 여러 겹으로 흘러내린 모습이며 발은 탈락된 채 본존과 동일하게 8각 대좌가 놓여 있다. 이목구비는 앳된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한편 남면 불·보살의 특징이라면 육감적인 테다 몸에 밀착되게 얇게 빛은 듯한 의습으로 인해 신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아름다운 육체미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서면의 협시보살상과 남면의 보살상과의 조각수법 또한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면의 보살상들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 반면 남면 보살머리는 상투처럼 머리칼을 높게 틀어 올려져 조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北面

마지막으로 북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線刻으로 처리된 11

30) 掘佛寺址 遺蹟發掘調查報告書에 의하면 佛具들은 1231年 몽고군 1次 침입때부터 시작하여 1260년까지 무려 29년간 高麗의 전 國土를 짓밟고 약탈한 時期의 것으로 추정했다.

31) 황수영 선생은 1914-1915년에 정을 들고온 무법자에 의해 석가여래의 두부와 전신상의 협시보살 부분이 감쪽같이 떼어져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다. 특히 1960년 당시 문교부 국보보존위원회 위원이었던 간송 전형필 선생과 이흥직·황수영 교수 일행이 경주유적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일본인들이 떼어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구열, 앞의 책, pp.141-142.

面 6臂 觀音菩薩像을 비롯 浮彫인 菩薩1구 등 2구의 菩薩이 새겨져 있다.(圖26) 먼저 선각으로 처리된 11面 6臂 관음보살상을 관찰해 보면 풍화작용으로 인해 마멸이 심하여 육안으로는 정확한 형상을 알아내기 힘든 형편이다.

김리나교수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11면 중 1면은 두부정상 윗 부분에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2면, 그리고 제일 밑에 5면 등 모두8면이 새겨져 있고 나머지 2면은 본 얼굴 左右側 귀 면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팔의 위치는 두 어깨 위로 쳐들어 올린 1雙, 가슴에 1雙, 그리고 허리부분까지 내려진 1雙 등 총 6개의 팔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그러나 내려뜨려진 좌측 손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물로 정병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圖27)

머리주변에는 삼중으로 頭光을 뚜렷하게 새겼고 마멸이 심해 알아보기는 힘들다. 보살의 가슴부분에 승각기로 보이는 띠가 가로로 지나고 있다. 또한 U자형의 균의가 허리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와 다시 Y자의 形態를 이루며 좌우대칭으로 나뉘어 무릎부분까지 흘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발은 우측으로 약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三曲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상과 유사한 형식의 조각으로는 國立慶州博物館 회랑에 전시된 통일신라시대 석조관음보살을 꼽을 수 있다. 부조 상인 또 다른 1구의 보살은 남면의 보살상과 조각수법이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남면의 보살상은 물론 서면의 보살상에 비해 서도 조각기술이 다소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밀착된 의복으로 인해 육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다소 도식적인 느낌이다. 오른쪽 손은 어깨부분까지 올려 손가락전체를 꼬부리고 있고³³⁾ 왼쪽 손은 내려서 天衣를 잡고 있다. 소녀같이 앳된 얼굴이며 寶冠에는 化佛이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U자형의 천의가 발목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면에 비해 조각수법이 다소 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한 조각가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기 보다는 여럿이서 나누어 조각을 한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의 특징을 지적하여 보면 서면 아미타삼

32) 김리나, 앞의 책, p.259.

33) 손가락을 꼬부리는 것은 三國時代부터 流行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진홍섭, 앞의 책, p.169.

존의 본존두부는 암반정상부위에 축을 깎아 결구시켜놓았고 또한 관음과 세지보살상은 이마 위에 인위적으로 축을 깎아 보관을 결구 시켜놓은 모습들이 특이했다. 또 조각과정에서 한 조각가에 의해 造成이 되었다기보다는 다수가 참여하여 完成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제작시기는 景德王 재위시 땅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한인 742년 이전에 이미 조성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유물로는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7세기말에 구워낸 기와 편 등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 본존의 장대함과 특히 사면에 새겨진 보살상들의 모습이 인도굽타기와 성당기에 나타나는 조각기법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날씬한 몸매로 인해 身體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특히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모습이 불교조각이 융성하던 시기에 적극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면석주에 새겨진 이들 불상들은 일정한 경전에 의해 표현했기보다는 신라 현교불교사상에 의해 造成되었을 가능성이 짙다.³⁴⁾

2. 西面 阿彌陀三尊佛像의 製作技法

불상의 파노라마를 연상하듯 丸彫, 浮彫, 線刻 등 다양한 조각방식으로 표현한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은 다른 마애불에 비해 조각기법이 특이한 면들을 엿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본존의 두부는 암석 정상부에 인위적으로 축을 깎아 결구 시켜놓은 일명 상투식 결구방식을 취했고 신체는 천연암석바위 그 자체를 신체로 삼아 표현했다.

좌측 관음보살상의 경우 이마 위에다 축을 깎아 보관을 결구했고, 우측 세지보살상은 두부가 탈락되고 목 위에 보관만을 올려놓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유리원판에 의하면³⁵⁾ 본존의 두부와 양 협시보살의 보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서면 아미타삼존불상 모두가 축을 깎아 두부와 보관을 결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보살은 환조로 입체화시켜놓았다.

한편 이러한 조각수법은 경주를 벗어나 다른 地域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

34) 김리나, 앞의 책, p.265.

35) 국립경주박물관, 『다시보는 경주와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1994, p.75.

는 독특한 신라조각양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서면 아미타삼존에 대한 조각 기법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本尊佛 頭部の 製作機法

1909年7월에 보고된 『東洋協會調查部 學術報告書 第1冊』과 掘佛寺遺蹟調查報告書에 따르면 그 당시 서면 아미타삼존상은 절반이 매몰되고 암반 위에 올려진 본존의 두부와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의 보관이 땅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圖28) 특히 본존의 두부가 탈락된 목 중앙부에는 너비20cm, 세로15cm가량의 축이 정교하게 깎여진 채 우뚝 솟아 있다. 그런데 마애불의 경우 통상적으로 바위면 전체를 이용해 불상을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의 경우 통상적인 조각수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바위에 신체부분만 표현한 뒤 두부는 따로 조각해 결구시켜 놓았다. 또 한편으로는 바위의 제약상 두부를 따로 조각해 결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불교조각이 가장 왕성했던 8세기경이었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그 시기에 中央에서 活動하던 彫刻家들에 의해 창안된 새로운 彫刻手法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서면의 본존두부는 조각당시 전문 匠人에 의해 따로 조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불상의 표현에 있어 가장중점을 두어야할 부분이 바로 얼굴이기 때문이다.³⁶⁾

() 觀音菩薩像 寶冠의 別造製作技法

관음보살상도 본존과 마찬가지로 보관이 땅에 떨어진 채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圖28 참조) 신부는 우측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머리 위에는 축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로15cm, 세로12cm 가량 되는 축은 본존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고, 특히 보관하단 중심부에는 축을 끼워 맞추기 위한 홈이 선명하게 파여져 있는 것은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보

36) 掘佛寺址 四面石佛像 東面藥師如來佛坐像과 南山冷谷磨崖如來大佛의 조각수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얼굴표현이 섬세해 수준 급 彫刻이다. 그러나 하단부위로 내려올수록 線刻에 가깝고 도식화된 모습을 볼 때 얼굴표현은 분명 전문 匠人에 맡겨져 彫刻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이 이마 앞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어 다소 어색한 느낌이나 이는 조각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로 빚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굴불사지 사면석불은 1910년부터 日帝에 의해 現況조사가 이루어졌고 뒤 이어 1985年 慶州古蹟發掘調査團에 의해 전면발굴과 함께 조사가 실시됐으나 축을 이용한 결구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언급한바가 없었던 것 같다.³⁷⁾ 그러면 조각과정에서 왜 한 개의 돌을 이용하지 않고 보관을 따로 조각해 이마 위에 올려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재료의 제약인가, 아니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존의 두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부만을 따로 조각해 결구 하듯이 보살의 보관도 따로 조각해 결구 했을 가능성이 짙다. 그러면 굴불사지 사면석불이 위치한 백불사와 주변일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이 유적지는 시내와 가장 근접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화강암 균락지로 알려지면서 주변일대에는 신라시대부터 석조부재로 활용하기 위해 켜기로 박은 화강암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圖29)

현재 관음보살의 높이가 320cm인데 주변에 불상을 조각 할 만 한 크기의 화강암이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곳에는 관음보살상을 조각할만한 400cm 이상 되는 화강암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축을 이용한 보관결구방식은 조성당시부터 치밀한 설계아래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굴불사지는 지난해 3월 문화재 당국에 의해 사면석불상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펼쳐졌는데 당시 관음보살보관 보수과정에서 축을 사용해 보관을 결구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圖30)

() 勢至菩薩像 寶冠의 別造製作技法

3등분으로 파손되어 문화재 당국이 복원을 시켜놓았지만 보살의 두부는 탈락된

37) 1915年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유리원판에 의하면 西面 阿彌陀三尊佛像의 본존과 관음·세지보살의 寶冠이 別造彫刻으로 인해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四面佛은 1910年 당시 일제에 의해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축을 이용한 頭部 結構方式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1985年 慶州古蹟發掘調査團에 의해 전면발굴이 이루어 졌을 당시에도 四面佛에 대한 양식적인 언급만 했을뿐 축을 이용한 結構方式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내용이 없다.

채 신부 위에는 보관만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다.(圖31) 좌측 관음보살의 보관에는 화불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반면, 勢至菩薩의 상징인 정병이 새겨진 부분은 애석하게도 탈락되어있다. 그러나 두 보살의 보관주변에 새겨진 文樣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좌 협시인 관음보살상에서 나타나는 보관의 조각수법과 거의 同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 즉 보관하단 띠에 새긴 과상형과 원형문양이 그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명 같은 時期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보살의 보관은 조각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신부와 보관을 각각 따로 彫刻 한 것으로 보아지나 두부가 탈락된 상태라 정확한 증거를 찾기란 어렵다.

그러나 1909년에 보고된 『東洋學會調查部 學術報告 第1冊』에 의하면 본존의 두상과 두 협시보살의 보관이 탈락되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축을 깎아 보관을 결구했을 가능성이 높다.(圖.28참조)

이상으로 西面에 대한 彫刻技法을 考察해 보았는데 결론을 언급하자면 굴불사지 사면석불이 조성될 당시에는 불교조각이 한창 융성하던 통일신라시기인 만큼 中央에서 활동하던 彫刻家들에 의해 창안된 획기적인 조각수법이고, 한편으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시킨 조각양식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일각에서는 축을 깎아 보관을 결구한 방식에 대해 조각당시에는 한 개의 돌로 一造 했으나 형상이 당초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부순 뒤 다시 축을 깎아 보관을 올려놓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 부분에 대해 本人은 조각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축을 깎아 보관을 결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불상조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굴인 만큼 보관조각에 구태여 중점을 둘 필요성이 없고, 특히 보관조각정도는 전문 匠人이 아니더라도 하수 조각가들이라면 충분히 조각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8) 현재 복원되어 있는 西面 阿彌陀三尊의 脇侍인 觀音과 勢至菩薩寶冠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別造해 올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三面 寶冠 띠 주변에는 右側에서 左側으로 5개의 과상형 문양이 새겨져 있고 또한 원형에 가까운 花紋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같은 시기에 축을 만들어 寶冠을 結構했을 가능성이 높다.

Ⅲ. 7 世紀 石造佛像의 一造 製作技法

1. 三尊佛 및 四面 石造佛像의 製作技法

먼저 별조제작기법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7세기 석조 삼존불상과 사면불에 대한 조각방식에 대한 考察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단 이 논고에서 7세기에 조성된 마애삼존불들은 제외를 시켰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천연암석자체를 身體로 삼아 彫刻했기 때문에 현재 논고 중인 별조제작기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고에서는 부조상인 석조삼존불상과 사면석불상만을 대상으로만 실례로 들기로 하겠다.

현재 경북 군위군 팔공산 기슭 석굴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도판32)을 비롯 경주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삼존불(圖33), 경주배동 배리삼체불(圖34)등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석조삼존불상들의 대부분이 발끝부터 머리부분까지 한 개의 돌을 이용해 일조하는 것이 特徵이고, 특히 본존의 경우 일부는 암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別石으로 조각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仙桃山 阿彌陀三尊佛의 경우는 조각기법이 다르다. 본존의 경우 690cm에 달하는 자연암석자체를 身體로 삼아 一造 했고, 460cm에 달하는 세지보살은 5개의 화강석으로 연결해 조성했다. 또한 관음보살상도 4개의 화강석을 연결해 조성하는 등 本尊과 전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료를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 이곳에서 조각한 것인지 아니면 完成된 것을 운반해와 짜 맞추어 올려놓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두 보살상 모두가 別石으로 올려놓은 것만은 틀림없다.

이에 대해 본인은 三尊佛의 위치가 해발 400여 미터에 달하는 비교적 고지대이고 특히 가파른 산세로 인해 운반의 제약상 재료를 분리해서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관음과 세지보살은 별조해 조립한 것만은 틀림없으나 두부틀 축을 이용하거나 鐵心을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는 없었다.(圖12-1참조) 또한 경북북부지역과 신라지역에서 발견된 사면석불상의 實例로 들기로 하겠다.

지난 1981년 충남 예산군 풍산면 화전리에서 발견된 백제 사면불을 자세히 살

펴보면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의 배치와는 전혀 다른 구도를 엿 볼 수 있다.(圖35) 사면전체에 각1구씩의 立像과 坐像이 새겨져 있는데 남면과 동면의 경우 양 손목에 흠만 파여져 있고 양 팔은 모두 脫落된 상태이다. 이러한 조각양식은 기원전 4천년 인더스 都市文明이 탄생하면서부터 주로 神像조각과정에서 두부와 팔을 결구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圖36) 또한 2-3세기 인도 쿠샤나 시대의 불타상과 보살상에서도 비슷한 樣式을 엿 볼 수 있었다.(圖37) 특히 이상들의 모습은 귀인의 모습이고 콧수염을 기른 모습이 전형적인 서방적이다.³⁹⁾

한편 결구의 조각방식이 인도와 서역을 거쳐 중국에까지 계승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실례가 중국석굴사원인 운강, 용문, 천룡산 석굴에서도 그 도상을 찾을 수가 있었다. 특히 용문 동산의 播鼓臺 南東에서는 본존이 보관을 쓰고 있으나 두부에 축을 이용해 결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관을 쓴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다.(圖38) 또한 천룡산석굴 제4동의 불 좌상에서는 목 부분에 두부를 연결한 흠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경주분황사우물터 에서 發掘된 (국립경주박물관 정원전시)불상들과의 조각수법이 그의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⁰⁾ 또한 이 조각양식은 신라지역으로 전파가 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조각양식이 國立慶州博物館 회랑에 전시된 불상 중 砂岩材 석조여래입상인데 이 불상 역시 양팔이 탈락된 모습을 볼 수 있다.(圖39) 따라서 이 양식은 인도 쿠산시대에 발견되고 있는 보살상과의 조각수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화전리 사면석불상도 앞서 언급된 불상들과의 조각수법이 비슷하다면 분명 이 양식은 인도를 거쳐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화전리 사면석불상의 경우 팔만 따로 조각해 결구 시켰을 뿐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처럼 두부를 결구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영주 신암리 사면불 남면에는(圖40)삼존불이 새겨져 있고 나머지 三面에는 1구의 입상들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경주 남산 칠불암 사면석불상 역시 사방전체에 1구의 불 좌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圖41) 7세기에 나타난 석조삼존불상과 사면불에서는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처럼 축과 철심을 이용한 두부결구방식과는 상관이 없

39) 韓國日報, 『世界的 博物館 19 印度國立博物館』, 1988, p.17.

40) 현재 國立慶州博物館 정원에는 壬辰倭亂당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14구의 石造佛像들이 경주분황사 우물에서 發掘되었는데 이중 4구정도가 鐵心을 이용해 頭部를 結構한 것 같다.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별조제작양식은 분명 인도를 거쳐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 사실인 것 같으나 이번 논고는 통일신라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고 있는 축과 鐵心을 사용한 結構方式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따름이고 본격적인 조각기법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두기로 하겠다.

IV. 8 世紀 石造佛像의 別造製作技法

한편 8세기 중반에 태동한 별조제작기법의 조형미술은 당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탄생한 불교 조각의 결정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新羅의 수도인 경주에는 각종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인도 굽타양식까지 받아들여지는데, 그 실례가 바로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의 남면의 석가삼존불이 아닌가 싶다.⁴¹⁾ 따라서 이 時代의 조각작품들이 활력 있고 자유분방해 짐에 따라 신라 특유의 조각방식인 별조제작기법이 탄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축을 이용해 결구하는 방식에 이어 鐵心을 사용해 두부를 결구하는 또 하나의 方式이 등장하면서⁴²⁾ 축과 철심을 동시에 사용한 결구방식은 후대인 고려시대까지 전승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되었다.⁴³⁾

그러나 8세기 중반이후부터는 중앙귀족들의 왕위쟁탈전과 호족세력의 난립으로 인해 불교조각이 다소 퇴락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그러나 각 지방에서는 나름 데로의 종교활동은 지속이 되었다. 특히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寺刹이 속속

41) 文明大, 앞의 책, p.159.

42) 國立慶州博物館 회랑에 전시된 石造如來立像(배반동 출토)의 樣式을 살펴보면 8세기중 반경의 조각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三道중심에는 頭部를 연결한 홈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축을 이용해 頭部를 연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掘佛寺址 四面 石佛像에서 철심을 이용해 頭部를 結構한 方式에 이어 鐵心을 이용한 結構方式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43) 佛教彫刻이 황금기를 맞은 8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곳곳에 寺刹이 들어서면서 禮拜의 대상인 佛像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 같다. 따라서 中央에서 活動하던 彫刻家들의 숫자에 비해 佛像의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分業化로 전환된 것 같다. 즉 시간단축을 위해 숙련된 조각가 밑에서 여럿이서 分擔을 맡아 두부·신부·광배·대좌 등을 각각 따로 彫刻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8세기 말경부터는 중앙집권체제가 흔들리면서 중앙에서 活動하던 彫刻家들의 활동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각 지방에서는 禪風이 일어나면서 비로자나불이 크게 성행하고 또한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寺刹들이 속속 건립된다. 따라서 각 지방에서는 일부 佛像이 山神에 대한 禮拜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佛像의 주문량이 급증했고, 이때 中央에서 活動하던 彫刻家들이 각 地方으로 이주를 하면서 別造製作技法이 그대로 繼承된 것 같다. 따라서 別造製作技法은 佛教彫刻이 隆盛하던 時期에 中央의 彫刻家들에 의해 창안된 아이디어이며 또한 운반하기에도 용이한 점 등을 들어볼 때 別造製作技法을 선택 한 것 같다. 그러나 分業化에 의해 각자 분담을 맡아 彫刻을 하겠지만 분명 얼굴만은 분명 숙련된 彫刻家에 의해 조성된 것 같다. 왜냐 하면 佛像彫刻에 있어 가장 중요시여기는 부분이 바로 얼굴 부분이다. 따라서 鐵心을 사용해 頭部를 結構할 경우 축보다는 鐵心이 훨씬 견고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들어서고 미술활동이 재개되면서 지방특유의 불상들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時期는 축을 이용해 결구하는 방식보다는 철심을 이용해 두부와 광배를 결구하는 방식이 적극 도입된다.

그러나 美術活動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숫 적인 面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새로운 양식의 탄생과 유행에 의해 예술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⁴⁴⁾ 따라서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의 별조제작기법이 당시 조형적 예술활동에 큰 힘을 얻어 현재 노천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는 경주남산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되다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양상을 띠게 됨을 알 수 있었다.⁴⁵⁾

그러나 필자가 분명 언급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산재해 있는 모든 석조불상들 전부가 별조제작에 의해서 造成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밝혀두고자 한다. 다만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에서 최초로 시도된 별조제작기법이 불교조각이 한창 융성하던 시기에 出發된 만큼 이러한 흔적들이 전국 곳곳에서 發見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이 이 논고에서는 별조에 의해 조성된 불상은 전국적으로 몇구가 造成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인은 숫자보다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축과 철심을 사용해 두부를 결구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는 만큼 이번 논고를 통해 기법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⁴⁶⁾

그러나 이번 논고를 통해 또 하나의 조각방식을 찾을 수 있었다면 결구방식이 아닌 접착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圖42)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國立大邱博物館 뜰에 전시된 석조여래좌상을 실례로 들기로 하겠다. 통상적인 결구방식에 의해 완성된 불상의 경우 신체와 삼도를 함께 조각한 뒤 축을 만들거나 아니면 흙을 파서 철심을 사용해 결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

44) 朴慶植, 『9世紀 新羅 石造美術에 關한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92, p.1.

45)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에서 축을 이용한 頭部結構方式이 慶州南山地域에 流行되다가 이후 高麗時代에 접어들면서부터 주로 磨崖佛과 彌勒大佛에 집중됐고, 특히 朝鮮時代에는 일부 장승들의 彫刻에도 계승이 된 것 같다.

46) 別造製作技法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한 學者는 姜友邦 교수이다. 1999년에 發刊된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p.390에 따르면 거대한 바위를 身體로 간주하고 頭部를 따로 彫刻하여 올려놓는 방식에 대해 『神佛習合』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掘佛寺址 四面石佛 서면 阿彌陀佛의 製作技法에 대해서는 頭部를 따로 造成해 올려놓았다는 내용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축을 이용한 結構方式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插圖3. 別造製作技法 傳播經路

불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목에는 축과 철심을 이용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바닥 윗 부분은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어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結構하기가 불가능 할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따라서 조성당시 어떠한 접착제를 사용해 두부를 결구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사용이 되었다면 생석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生石灰의 경우 순수한 접착제가 아니므로 결구에 사용이 되었다기보다는 두부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8세기 후반에 조성된 석탑을 실례로 들기로 하겠다. 흔히 석탑을 조성하면서 탑신과 옥개석을 그냥 짜 맞추어 올려놓듯이 대부분 결구하지 않은 상태로 완성시켜 놓았다,(圖43) 이를 감안한다면 불상의 두부도 목 부분의 바닥 면만 다듬은 채 그냥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각기법에 대해서는 硏究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두부가 탈락되어 복원된 일부 불상의 경우 과도한 시멘트 사용으로 인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완벽한 조사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한다.⁴⁷⁾

그러면 8세기 중반 별조제작기법에 의해 조성된 불상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례로 들기로 하겠다.

(1) 慶州南山冷谷石造如來佛坐像(8세기. 불상 높이 142cm. 보물 제666호. 경주남산 냉골.)

1917년에 발간된 朝鮮古蹟圖譜에 의하면 이 불상은 굴불사지 사면석불상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축을 이용해 두부를 결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남산의 대표적인 불상이다.⁴⁸⁾ 특히 이 불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배를 조성하면서 철심을 사용해 대좌를 結構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너비 6cm.지름 10cm가량의 홈을 판 뒤 5cm가량 되는 鐵心을 꽂아 광배를 결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⁴⁹⁾(圖44) 따라서 철심을 사용해 광배를 결구하는 방식이 결국 불상의 두부를 결구하는데 적극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이곳에서 약500여m 떨어진 藥水谷 磨崖大佛에서도 철심을 사용해 두부를 결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냉골 석조여래불좌상에서 광배를 결구하듯이 결구 방식이 계승된 것 같다.

한편 이 불상의 두부는 언제 훼손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1917년 이전에 이미 탈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1917년 朝鮮古蹟圖譜發刊을 위해 사진촬영당시 이미 두부가 땅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던 것을 누군가에 의해 대좌하대석 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⁵⁰⁾ 당당한 가슴에 범의는 우견

47) 別造製作技法으로 인해 頭部가 脫落된 佛像들이 후대에 이르러 복원과정에서 과도한 시멘트 사용으로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불상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특히 頭部가 脫落된 佛像들의 경우 다른 頭部를 짜 맞추어 올려놓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시멘트가 사용되어 때로는 凶한 모습이 역력하다.

48) 이 石造如來坐像은 掘佛寺址 西面 阿彌陀三尊佛에서 나타나듯이 三道에 축을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頭部를 올려놓은 것이 1917년에 刊行된 朝鮮古蹟圖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頭部는 脫落되고 축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8세기 중반에 축을 이용한 別造製作技法이 당시 南山 일대의 佛像彫刻에도 적극 수렴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石造佛像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불상은 광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철심을 사용해 광배를 결구시켜놓은 흔적까지도 남아있다. 즉, 축과 철심을 동시에 사용해 완성시켜놓은 모습이 특이하다.

49) 本尊의 頭部는 축을 이용해 結構했지만 光背는 彫刻의 제약상 鐵心을 이용한 것 같다. 즉 축과 鐵心을 동시에 사용해 結構한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겠다.

50)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佛像은 日帝에 의해 보수가 되었는데 毀損된 상호부분을 아무런

편단이며 수인은 항마촉지인이다.⁵¹⁾ 光背는 뒤로 넘어지면서 3등분으로 깨어져 있고, 원형 대좌에 2중 앙련 연꽃을 새겼다. 두부를 결구한 목의 각도는 30°이며 축의 너비는 약20cm에 높이15cm에 달하고 있다.



插圖4. 慶州南山冷谷石造如來佛坐像

(2) 慶州南山茸長溪石造如來佛坐像(8세기. 불상 높이 127cm. 전체 높이가 305cm. 국립경주박물관.)

지난 1929년 경주 남산용장계곡에서 발견된 뒤 國立慶州博物館으로 옮겨온 것이다. 발견당시 불상의 두부와 광배는 탈락된 채 발견되었으나 광배는 다행이 주

고증도 없이 시멘트로 발라놓아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毀損 이전에는 南山佛像을 대표할 만큼 彫刻手法이 뛰어난 作品이라할 수 있겠다.

51) 佛像의 光背 가장자리에는 화염문을 새겨 약동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 같다. 즉 造成 과정에서 화려하고 생기 넘치게 彫刻하려 했던 것 같다.

변계곡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두부는 찾지 못했다. 그 뒤 38년이 지난 뒤 남산 포석마을에서 두부가 농가를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박물관 측이 기증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⁵²⁾

1975년 당시 鄭良謨 館長과 직원들이 두부가 없는 것을 흉하게 여겨 기증 받은 두부 중 신부와 가장비례가 되는 두부를 골라 약사여래 목에 올려보았더니 놀랍게도 꼭 맞았다.⁵³⁾ 신부와 두부가 46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死佛이 生佛이 된 셈이다. 소문에 의하면 한 農夫가 벼 타작을 위해 반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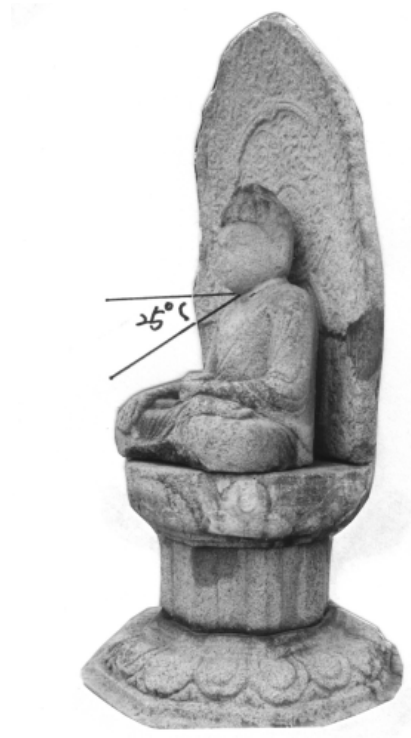


插圖5. 慶州南山茸長溪石造藥師如來佛像

다. 즉, 별조제작기법에 의해 두부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반출이 용이했던 것 같

52) 佛像의 頭部는 용장사와 포석마을주변 農家로 떠돌아다니다가 지난 70년경에 기증 받아 博物館으로 들오게 된 것인데 당시 한 農夫가 벼 타작을 위해 지계를 이용해 搬出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3) 姜友邦, 앞의 책, p.409.

다. 1929년 발견당시 사진에 나타난 약사여래불상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목 위에는 축과 철심을 사용해 두부를 결구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두부가 탈락된 목 바닥 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두부가 접합된 부위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성당시 축을 깎아 결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頭部가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면서 축이 훼손된 것 같다. 따라서 이 불상은 전란과 억불정책으로 인해 두부가 탈락되었다기 보다는 별조제작으로 인해 두부를 떼어내기가 용의 했다는 점이 훼손의 주요요인이 된 것 같다.

한편 약사여래의 얼굴은 타작과정에서 벼 알과 부딪치면서 마멸이 심하나 표정만은 풍만하고 慈悲스러운 모습이다.⁵⁴⁾ 긴장한 어깨에 法衣는 우견편단이고 항마촉지인에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두부를 결구한 목의 각도는 25°이다.

(3) 慶州南山彌勒谷石造如來佛坐像(8세기. 불상 높이 244cm. 전체 높이 4.36cm. 보물 제136호. 남산 보리사.)

경주시 배반동에 미륵곡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반의 불상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작품이다.⁵⁵⁾ 이 석불상은 두부 결구방식이 특이하다. 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된 1950년 유리원판에 의하면 이 불상은 다른 불상에 비해 조각기법이 약간 다른 모습을 發見할 수 있다. 다른 불상조각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었듯이 대부분 신부와 삼도를 함께 조각한 뒤 그 위에 두부를 결구하나 이 불상의 경우 반대로 조각되어 있다. 즉, 두부와 삼도를 함께 조각한 뒤 결구 한 모습이 특이하다. 그러나 조성당시 축과 철심 중 어느 것을 使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축보다는 철심을 사용해 결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불상의 목 주변언저리

54) 文明大 교수는 葦長寺溪石佛坐像에 대해 우아한 형태의 佛像樣式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佛顏을 만들어낸 것이며, 또한 이 계통의 佛像 가운데 그 樣式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作品이라고 했다. 특히 앞가슴이 유난히 발달된 점과 당당한 어깨 더우이 옆구리의 옷 주름이 갈빗대 같이 강건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며, 얼굴은 부푼 듯 하며 힘을 느끼게 하여 전체적으로 사실주의 작풍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佛像의 樣式은 이상적인 佛顏과 佛의 체구를 보여주는 사실주의 彫刻의 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文明大, 앞의 책, pp.200-201.

55) 文明大 교수는 보리사 石造佛像에 대해 “감산사 佛像에서 훨씬 진보되었다는 것을 실감을 느끼게 하는 佛像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文明大, 앞의 책, p.200.



插圖6. 慶州南山彌勒谷石造如來佛坐像

를 관찰해보면 조성과정에서 철심에 유황을 사용해서 그런지 녹물이 결구한 주위에 배어 나온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⁵⁶⁾ 즉, 유황을 사용할 경우 鐵心이 팽창해지면서 결구된 부분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 유황을 사용한 것 같다.

본존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자비가 넘치는 근엄한 모습이고⁵⁷⁾ 단순 소박하고 힘찬 옷주름 표현에서 전형적인 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견편 단이나 우측 어깨를 가리기 위해 별도의 옷웃을 걸친 것 같다. 큼직한 육계에 나발이 뚜렷하며 광배 뒷 면에는 약사여래상이 새겨져 있다.⁵⁸⁾ 수인은 항마촉지인에 두부를 結構한 목의 각도는 25°이다.

(4) 砂岩製石造如來佛立像(8세기. 불상 높이 178cm.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북부동 읍성에서 출토되어 國立慶州博物館으로 옮겨온 이 불상은 화강암이 아닌 砂岩製로 조각한 것인데 긴장한 신체표현에서 이국적인 요소가 강하다.⁵⁹⁾ 불상양식에 대해 문명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예 로써양식적으로 보아 인도굽타와 마투라 불상과 비교되는 만큼 고대불교조각사에 귀중한 자료이며,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활발한 문화교류에 의해 인도의 불교미술이 직접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⁶⁰⁾ 특히 우리나라 석불상 대부분이 강도가 높은 화강암을 재료로 조각하는데 비해 사암제를 이용해 조각한 것은 주목할 만한 재료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통일 전성기에는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조각한 대표적인 불상인 것 같다.

56) 통상적으로 石造文化財를 보수하거나 복원할 경우 접착부위에 鐵心을 박아 넣고 그 부위에 유황을 부어 접착을 시키는 방식이 적극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鐵心에서 發生되는 녹으로 인하여 石材가 오염되고, 여기서 유황에서 배출되는 검은 녹물로 인해 佛像 전체를 손상시켜 외관을 해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57) 姜友邦, 앞의 책, p.401.

58) 윤경렬 선생은 經典내용대로 동방유리광세계의 반대편에는 서방극락세계이므로 이 佛像을 阿彌陀佛라고 언급한바 있다.(윤경렬,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불지사, 1993. p.6)

59) 文明大 교수는 砂岩製石造如來佛坐像을 異國的인 요소가 강한 佛像으로 7세기 후반경으로 보고 있다. 즉 팽창된 얼굴에 불거진 눈망울, 통통한 뺨에 V자형 평행 의습의 특이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유형의 佛像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며, 이는 新羅 佛敎가 융성할 때 인도, 중국미술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 직접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60) 文明大, 『慶州博物館 砂岩製 如來立像考』, 『考古美術』, 1974.12, pp.4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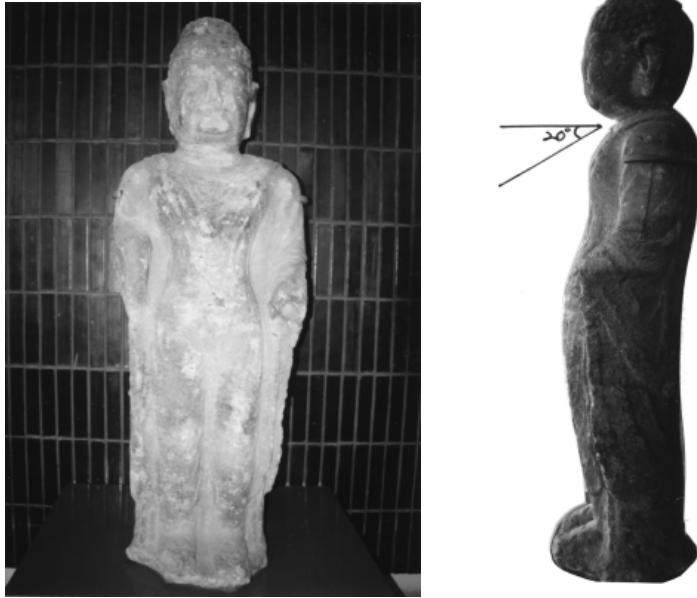


插圖7. 國立慶州博物館砂岩製石造如來佛立像

상태로 발견되어 조각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 불상의 팔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목이 탈락된 그 자리에는 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각방식은 인도와 중국의 석굴사원에서 도상을 찾을 수 있었고⁶¹⁾ 이 때 본존의 두부도 별조제작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존의 얼굴은 풍만해 마치 中國人의 얼굴을 보는 듯 부푼 느낌을 주고 있으며 나발에 육계가 우뚝 솟아 있다. 삼도 부분에는 두부를 결구한 흔적이 뚜렷하게

61) 別造製作技法은 4천년 전 印度文明이 胎動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뉴델리 국립박물관 제1전시실에는 인도하파라에서 出土된 석화암 남성토르스 小像(9.2cm)이 있는데 이 像을 觀察해보면 頭部와 팔을 끼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 具山왕조가 3세기 중반 경에 쇠망한 뒤 마가다 地方에서는 굽타왕조가 일어나게 된다. 이 때 佛敎美術은 인도적으로 순화된 완성기를 맞이하면서 일부 砂岩製로 만든 佛像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때 역시 頭部를 따로 彫刻한 흔적을 엿 볼 수 있어 別造製作技法으로 보이는 彫刻手法이 굽타기 까지 전승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別造製作技法이 中國운강석굴이 개착되던 (雲岡石窟 막고굴 제248) 460년경부터 그 手法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지역인 예산 화전리 滑石四面佛 들 수 있겠다. 남면과 동면의 佛坐像들을 살펴보면 조각과정에서 손목을 끼운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난다. 新羅地域에서는 유일하게 國立慶州博物館 回廊에 전시된 이 佛像을 들 수 있겠는데 砂岩製 石造如來立像이 신라지역에서 까지 發見되고 있는 것은 佛敎가 흥성하던 시기에 구에받지않고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아 있으며 결구된 목의 각도는 20°이다. 법의는 통견이며 가슴에는 U자 형태의 층단 무늬가 하단부위로 내려오다가 허리부분에 도달해 Y자 형태로 대칭을 이룬다. 두 팔은 탈락되었으나 조각당시 통인으로 표현한 것 같고, 밀착된 의습으로 인해 신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육감적이고 感覺的이다. 이러한 양식은 5세기경 중국에서 일부 제작되었으나 유행을 보지 못하다가 다시 7세기경에 유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 중엽에 일부조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사암제로 조각된 불상은 국립경북대박물관 정원에 모셔진 비로자나불상을 비롯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석조여래약사여래입상 등이 발견되고 있다.

(5) 慶州排盤洞出土石造如來佛立像(8세기. 불상 높이 70cm. 국립경주 박물관.)

경주 배반동에서 出土된 이 석불입상은 발견당시 두 팔과 양쪽 다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어 國立慶州博物館으로 옮겨온 것이다. 8세기 중반 촉을 이용한 결구방식이 등장하면서 곧 이어 두부를 철심으로 연결한 불상으로는 첫 사례인 것 같다.⁶²⁾ 마멸이 심해 구체적인 樣式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우나⁶³⁾ 그나마 신부가 남아 있어 양식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도움은 될 것 같다.⁶⁴⁾ 흠의 너비8cm. 그러나 재질이 약해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발견당시 양호한

62) 鐵心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佛像은 佛教彫刻이 흥성하던 景德王시기(742-765)에 造成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촉을 이용한 結構方式에 이어 鐵心을 연결해 頭部를 結構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佛像이라 할 수 있겠다. 이 佛像 역시 掘佛寺址 四面石佛像 南面 阿彌陀三尊佛의 좌 협시보살인 觀音菩薩과 彫刻手法과 빼어 닮은 모습이다. 盛唐樣式의 여과인지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 같다. 彫刻手法으로 보아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樣式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造成된 것 같은 느낌이 다. 따라서 촉에 이어 鐵心을 연결한 結構方式이 뒤 이어 나타난 대표적인 실례가 아닌가 싶다.

63) 배반동에서 출토될 당시 팔과 다리모두가 훼손되고 신체부위만 남은 상태에서 발견되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다른 佛像에 비해 훼손이 다소 심한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파손한 것 같다.

64) 이 佛像의 彫刻樣式은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의 南面 釋迦如來像과의 彫刻手法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세기 중반에 造成된 것으로 생각된다. 磨滅은 다소 심하나 벌어진 어깨, 밀착된 의습으로 인해 身體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肉感的이고 感覺的인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촉에 이어 鐵心을 사용한 頭部結構方式이 뒤 이어 선행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插圖8. 慶州排盤洞出土石造如來立像

지름9cm이며 두부를 결구한 목의 각도는 25°이다. 목 하단부위에는 조각당시 三道를 새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훼손으로 인해 목 부위는 탈락됐지만 철심을 꽃아 두부를 결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 본존의 가슴은 당당하고 배가 푹 튀어나온 모습이 성당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기에 불교조상활동이 한창일 때 造成된 것 같고 특히 허리가 잘록하고 날씬한 몸매의 표현은 인도굽타기의 조각양식과도 비슷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⁶⁵⁾

(6) 榮州石橋里石佛立像(8세기. 불상 높이2m. 보물 제116호. 경북 영주 석교리.)

통일신라 후반에 조성된 이 불상은 경북 영주 석교리에 모셔져 있다. 굴불사지

65) 현재 이 佛像은 신체부위만 남겨두고 그의 毀損된 상태이다. 그러나 彫刻樣式으로 보아 盛唐時代의 영향을 받았는 것 같고 조각수법 또한 掘佛寺址 南面 釋迦三尊佛과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사면석불상에서 출발한 별조제작기법이 이곳 북부지역까지 계승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 북부지역은 慶州를 中心으로 정치·군사적 요충지인 만큼 당시 불교미술이 빠르게 전파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⁶⁶⁾ 이 불상 역시 자세히 관찰해 보면 두부를 별조제작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頭部를 결구한 자리가 비교적 편평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축을 만들어 結構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부만 올려놓았을 가능성도 있다.⁶⁷⁾ 신부에 비해 두부가 크며, 얼굴은 살이 올라 풍만하다. 법의는 통견에 옷자락에는 同心 타원형의 옷주름은 8세기 말 金銅佛에서 흔히 나타난다. 두부를 결구한 목의 각도는 3°이다.



插圖9. 榮州石橋里石造如來佛立像

- 66) 현재 이 지역에는 慶州에 이어 두 번째로 彫刻活動이 많이 이루어진 곳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慶州에서 출발한 別造彫刻技法이 이곳까지 계승이 되었다는 증거인데, 실례로 黑石寺 石造如來佛坐像을 비롯, 浮石寺 慈忍堂 石造毘盧舍那佛坐像 등 영주와 인접한 지역에도 頭部를 結構한 佛像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 67) 國立大邱博物館에 소장된 石造如來佛坐像의 경우 三道 바닥 면을 觀察해 보면 축과 鐵心으로 頭部를 結構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즉 三道 바닥 면을 편평하게 연마한 뒤 頭部를 그냥 올려놓아도 될 정도로 바닥 면이 고르다. 따라서 禮拜의 대상인 만큼 옮겨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石橋里石佛像의 頭部도 그냥 올려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시멘트를 발라 고정시켜놓았다.

한편 진홍섭 선생은 이 불상에 대해 생동감이 넘치고 있음을 강조했고 특히 두 무릎에 同心타원형의 옷 주름은 통일신라시대 金銅佛에서 나타나고 있는 形式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옷 무늬는 배 후면에까지도 표현되어 있고 불신의 독특한 표현과 아울러 사실적인 묘사에 성공한 작품이라면 이 불상은 지방특유의 조각수법임을 강조했다.⁶⁸⁾

68) 秦弘燮, 앞의 책, p.239.

V. 9 世紀 以後 別造製作技法의 展開

8세기 중반에 촉에 이어 철심을 사용해 두부를 결구하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彫刻樣式이 9세기에 이어 高麗時代까지 전승된다. 특히 9세기에 접어들면서 降魔觸地印, 藥師如來佛, 智拳印 등 많은 불상들이 제작되는데 이 경우 철심을 사용해 두부를 결구하는 方式이 흔히 나타나게된다. 특히 시대가 下限일수록 대좌를 갖춘 형식의 불상규모는 다소 축소되기는 하나 지방특유의 조각기법까지 등장하면서 별조제작기법을 이용한 조각활동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대좌를 갖춘 좌 불상의 경우 조각과정에서 촉을 깎아 두부를 결구하기 보다는 鐵心을 사용한 결구방식이 많이 성행한 것 같다. 즉 철심을 사용할 경우 작업시간단축은 물론 촉에 비해 훨씬 견고하고 운반과정에서의 편의성을 감안할 때 실용성을 더 강조한 것 같다. 그러나 미륵대불의 경우 바위의 제약상 두부를 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안동 이천동 석불의 경우 철심을 사용해 목 주위가 다소 오염되기는 했지만 결구한 것은 이미 밝혀진 사례이고⁶⁹⁾ 여기에 경주 남산 약수곡마애대불도 鐵心을 사용해 두부를 연결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불조각에도 철심을 사용한 조각기법이 여전히 성행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의 경우 지난해 보존처리과정에서 굴불사지 서면 아미타 삼존불상처럼 이마에 촉을 만들어 寶冠을 올려놓듯이 이 불상 역시 촉을 이용해 두부를 결구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촉과 철심을 동시에 사용한 조각기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⁷⁰⁾ 따라서 8세기 중반에 出發한 두부결구방식이 고려시대의 대불까지 전승된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한편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미륵불과 장승의 조각과정에서도 여전히 계승이 됐고, 특히 건칠보살좌상 등 규모가 작은 佛像에서도 寶冠을 따로 조성해 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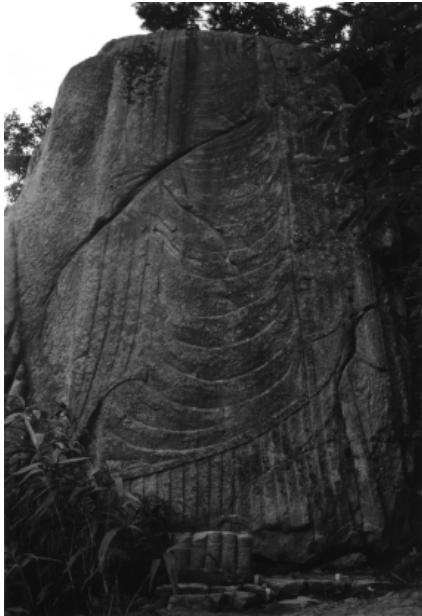
69) 이천동 磨崖佛像의 三道부분을 觀察해 보면 慶州 南山 彌勒谷(보리사)石造如來佛坐像과 비슷하게 목하단부분에 녹물로 추정되는 이물질들이 오염된 채 佛像의 하단부위로 흘러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頭部結構과정에서 鐵心사용으로 인해 오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70) 忠南 公州大學校 기초과학 연구소,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보존처리 공사 보고서』, 2000. 9. pp.57-59.

위에 올려놓은 方式이 더욱 흥미롭다.⁷¹⁾ 그러면 8세기에 이어 9세기경에 별조제작기법으로 조성된 불상들에 대한 실례를 들기로 하겠다.

(1) 慶州藥水谷磨崖大佛(9세기. 불상 높이 860cm. 경주 남산 약수골.)

佛像의 높이는 약 10m로 남산약수곡 골짜기 막바지에 있는데 마치 고층 건물 처럼 우뚝 솟아 있다. 이 불상은 축을 이용해 두부를 결구하는 方式에 이어 남산 지역에서는 대불로 鐵心을 사용해 두부를 연결한 방식이 처음 나타난 사례이다. 조성당시 지름10cm정도 크기의 鐵心을 사용해 結構(너비70cm)했던 것으로 여겨 지는데 현재까지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본존의 발 부분도 별조해 끼워 넣었다.⁷²⁾



- 71) 경북 영덕 장륙사 乾漆菩薩坐像과 경주 양북면 기림사 乾漆菩薩坐像 등을 살펴보면 菩薩 이마 위에 寶冠을 따로 彫刻해 올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굴불사지 사면석불 상에서 나타난 조각기법이 그대로 전승된 것 같다.
- 72) 足部를 따로 彫刻해 끼워 넣는 방식은 경주선도산 阿彌陀三尊佛像이 효시가 된 것 같다. 이후 掘佛寺址 四面石佛像 西面阿彌陀三尊佛 좌 협시인 觀音菩薩像과 남산 탐곡 如來立像, 예천 동본동 彌勒大佛에서도 彫刻樣式이 그대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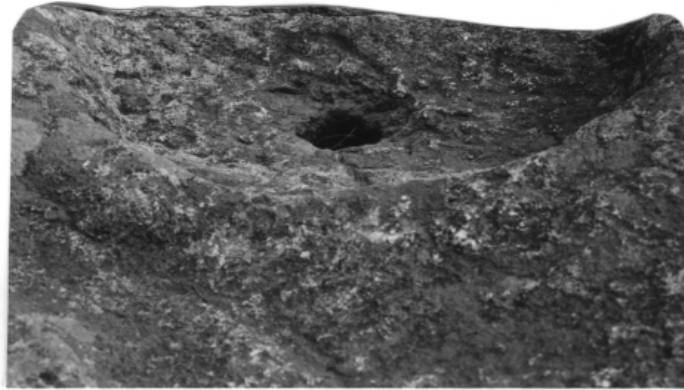


插圖10. 慶州南山藥水谷磨崖大佛像

이러한 결구방식은 앞서 언급한 남산 냉곡 석조여래좌상의 광배를 철심을 사용해 연결했던 것처럼 이 불상역시 두부를 철심을 사용해 연결했던 것 같다. 두 손을 가슴 앞가슴으로 올려 설법인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法衣는 물결이 밀려오듯이 U자 형태로 층단을 이루며 하단으로 내려오다가 무릎부분에 도달해 대각선으로 갈라진다. 그 아래에는 내의가 발등을 덮고 있으며 조각의 형태가 자신 있고 명쾌한 조각솜씨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의 기백이 그대로 살아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결국 이 樣式은 高麗時代의 거불 양식에 선구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⁷³⁾

한편 일각에서는 흠의 흔적에 대해 두부를 연결했다기보다는 불구를 봉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⁷⁴⁾ 이 부분에 대해 本人은 불구를 봉안했다기 보다는 철심을 사용해 두부를 결구 했던 것 같다.⁷⁵⁾ 실제 경주 강동면 안계사지 석조여래좌상과 단석산 석조여래좌상 경우 本尊의 엉덩이 밑 부분에 인위적으로 크다란

73) 姜友邦, 앞의 책, p.416.

74) 만약 흠에다 佛具를 奉安하고 頭部를 올려놓을 경우 風雨로 인해 단 시일내 毀損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本人은 佛具를 奉安하기 위해서 보다는 頭部를 結構하기 위한 목적으로 흠을 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毀損된 三道를 觀察해 보면 鐵心을 박은 흔적은 없다. 本人은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은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용미리 彌勒佛像을 실례로 들기로 하겠다. 本尊 左側의 佛像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 겹으로 돌을 쌓아 頭部를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약수곡 대불의 경우도 三道 밑부분에다 돌을 먼저 놓은 뒤 그 위에 삼도와 두부를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75) 윤경렬,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불지사, pp.1993-238.

흠을 판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 흔적이 바로 불구를 봉안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흠 흔적에 대해서 본인은 불구를 봉안하기 보다는 두부를 결구하기 위해서 흠을 팠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慶北醴泉東本洞石造如來佛立像(9세기. 불상 높이 346cm. 보물 제 427호. 경북 예천군 동본동.)

統一新羅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높이가 350cm에 달하는 大佛이다. 이 불상역시 발 부분을 따로 조성해 끼워 넣었는데 경주탑곡석조여래입상과 조각수법이 그의 동일함을 엿 볼 수 있다. 造成과정에서 3등분으로 조각해 결구 한 것으로 판단되



插圖11. 慶北醴泉東本洞石造如來佛立像

는데, 재료의 제약상 별조해 완성한 것 같다. 즉 頭部·身部·臺座 등을 각각 따로 조각한 것인데 두부의 결구방식은 철심보다는 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⁷⁶⁾ 왜냐하면 두부를 결구한 접합부분이 영주 석교리 석불상처럼 목 부분이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불의 경우 축을 깎아 두부를 올려놓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本尊의 얼굴은 자비와 위엄이 넘치고 있으며 법의는 통견에 당대의 걸작품으로 불리고 있다.⁷⁷⁾

(3) 慶州南山葺長溪藥師如來佛坐像(9세기. 높이 124cm. 경주 남산. 용장계 절골)

이 불상은 지난 1940年 열반곡 계곡에서 자갈과 모래에 묻혀있던 것을 파낸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아마 洪水로 인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남산 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그러했듯이 각종 유물들이 전란으로 인해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유물들이 많이 훼손되었다⁷⁸⁾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례이다.

불상 역시 약수곡 대불처럼 홈을 이용해 두부를 결구한 것인데 홈의 너비 5cm. 지름 8cm의 홈을 이용했고 목의 각도는 15°이다. 현재 이 불상은 두부만 탈락되었을 뿐 佛像은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목 중앙부위에는 두부를 결구한 흔적의 홈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고, 현재 佛像이 위치는 허물어진 대웅전자리인데 당시 축대 또한 선명하게 남아 있다. 특히 계곡 주변에는 당시 폭우로 인해 유실된 석조유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큰 규모 寺刹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법의는 통견이고 몸에 밀착된 의습으로 인해 신체의 굴곡이 그대로

76) 현재는 結構한 부분을 시멘트로 발라놓았는데 자세히 觀察해보면 頭部는 따로 彫刻해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右側 三道부분이 약간 脫落되어 보수를 해 놓았는데 한 개의 돌로 彫刻한 뒤 후대에 이르러 頭部가 인위적인 毀損으로 인해 脫落이 된 것처럼 보아지나 사실은 따로 彫刻되어 있다.

77) 文明大 교수는 이 作品에 대해 과량감 넘치는 신체와 평판적인 상체를 강조했다. 얼굴은 사각형에 의습의 표현이 도피안사와 축서사의 佛像과 흡사하며 이는 당대의 거구불상에서 나타난 뛰어난 조형성을 직언해 주는 대작임이라고 말했다. 文明大, 『韓國彫刻史』, 1980, p.243.

78) 열반골에 위치한 이 절터는 주변에 많은 溪谷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 佛像이 모셔져 있다. 아직도 돌로 쌓은 축대와 절터가 남아 있고 주변에는 塔의 부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갑작스런 暴雨로 인해 폐허가 된 것 같다.

드러나 있고 늘씬한 편이다. 왼손에는 약함으로 보이는 지물을 들고 있어 藥師如來佛인 것 같다.



插圖12. 慶州南山茸長溪石造藥師如來佛坐像

(4) 芬皇寺出土石造如來佛坐像(9세기. 불상 높이 55cm. 국립경주박물관)

임진왜란당시 芬皇寺에 매몰된 14구의 佛像중 하나이다.⁷⁹⁾ 다소 축소된 모습이나 두부를 결구하기 위한 홈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홈의 너비는 7cm. 지름4cm 정도이며 두부를 결구한 목의 각도는 15°이다. 현재 두부를 연결했던 부위가 비교적 깨끗하게 남아 있어 자료로 활용하기에 양호한 편이다. 이 불상은 임진왜란

79) 金元龍교수의 주도로 1965년 서울대학교 史學科에서 發掘調査가 최초로 실시되었었다. 이 결과 목이 탈락된 13구의 佛像을 비롯, 菩薩立像1구, 佛頭5점, 光背1점 총 20여 구의 석조유물들이 發掘되어 그 당시 慶州博物館으로 옮겨온 것이다. 發掘당시 佛像들은 마치 벽돌을 쌓아 놓았던 것처럼 양호한 상태에서 發掘됐고 또 한 칸 에는 5점의 佛頭만 따로 모아 두었다. 戰亂 또는 拜佛定策으로 인해 受傷을 당하지 않게 意圖的으로 頭部를 잘라 숨겨 놓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매몰당시 정연하게 놓인 상태에서 發掘이 이루어졌다.

당시 두부를 의도적으로 잘라 우물 속에 숨겨두었던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 발굴당시 14구의 불상들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에서 발굴됐는데 의도적으로 숨겨두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발견당시 마멸이 심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양식을 이해하는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조각당시 降魔觸地印으로 표현하려했던 것 같고 범의는 우견편단에 당당한 가슴이다.

한편 발굴된 14구의 불상중에는 4구 정도가 두부를 별조제작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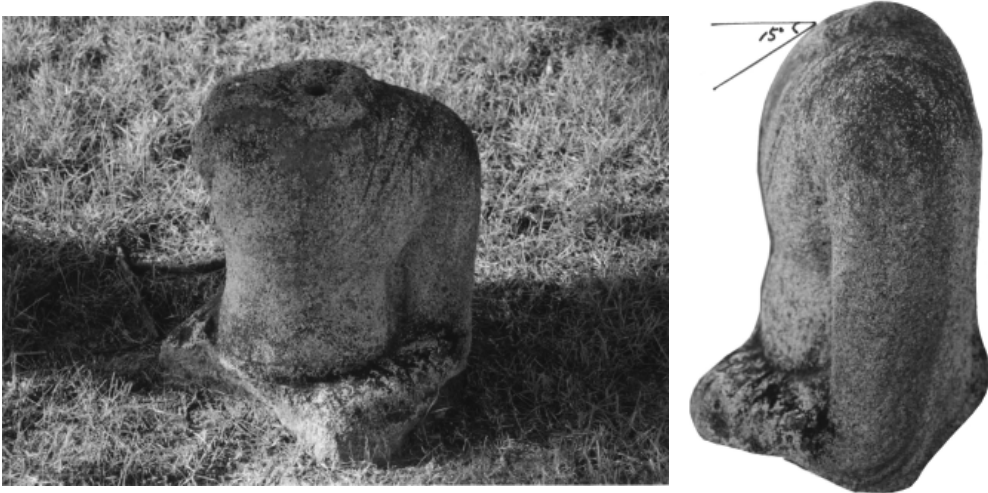


插圖13. 慶州芬皇寺出土石造如來佛坐像

(5) 慶州芬皇寺出土石造藥師如來佛坐像(9세기. 불상 높이 45cm. 국립 경주박물관.)

9세기경 대중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민예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佛像이다.⁸⁰⁾ 특히 두꺼운 通肩이 무릎 밑 부분까지 흘러내리고 있어 토착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손은 배꼽부분으로 모은 뒤 약함으로 보이는 지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藥師如來인 것 같다. 목 중앙에는 철심을 꿰어 두부를 연결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흙의 너비7cm.지름4cm 정도이며 두부를 결구한 목의 각

80) 이 佛像의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과 彫刻樣式과 그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동석, 『금동불』, 예경, 2000. p.266.

도는 30°이다.

한편 머리가 탈락된 불상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탈과 역불정책으로 떨어져 나간 뒤 이후 다시 흙을 판 뒤 두부를 다시 올려놓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나 목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잘려진 부분이 정교하고 특히 바닥 면이 비교적 편평한 점등을 미뤄볼 때 의도적으로 훼손했다하기보다는 별조로 인해 두부가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⁸¹⁾ 두꺼운 법의가 양어깨 위에서 흘러내려 V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양쪽 팔은 법의에 덮힌 채 비교적 굵게 표현했다.



插圖14. 慶州芬皇寺出土石造如來佛坐像

(6) 慶北大學校石造毘盧舍那佛坐像(9세기. 불상 전체높이 279cm. 국립 경북대박물관.)

현재 경북대학교박물관에는 2구의 비로사나불좌상이 모셔져 있다. 그중 박물관 入口에 전시된 佛像이다. 통일신라 말엽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⁸²⁾ 광배 상

81) 이 佛像은 조성당시부터 別造로 製作했을 가능성이 높다. 잘려진 목 부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脫落부위가 양호한 편이다. 만약 人爲的으로 毀損을 시켰더라면 굴곡(凹凸)현상이 일어났을 것이고 특히 側面에서 보아도 彫刻手法으로 別造한 것으로 판단된다.

82) 현재 이 佛像은 國立中央博物館에 모셔진 石造毘盧舍那佛坐像과 彫刻手法이 그의 비슷하다. 臺座와 光背가 완벽한 石佛인데 頭部에는 螺髮이 뚜렷하다. 얼굴은 통통한 반면코와 입술은 작다. 즉 別造彫刻技法에 의해 頭部·身部·光背·臺座를 각각 따로 彫刻

단부분에 약간 훼손이 되었을 뿐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保存되고 있어 사료가치가 높다. 이 불상 역시 경주에서 출발한 별조제작기법이 당시 신라의 軍事的 전술요충지임을 감안 할 때 경주-대구-선산-안동-예천 등 북부지역으로 전승될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각솜씨가 워낙 섬세해 결구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따라서 축과 철심 중 어느 것을 이용해 결구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두부를 접한 목 부위를 살펴보면 鐵心을 사용해 結構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접합부분이 섬세하고 특히 결구된 목의 각도가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本尊의 얼굴은 풍만하고 사색에 잠긴 듯한 근엄한 모습이고 법의는 통견이다.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내의 띠가 선명하게 彫刻되어 있고 대좌는 부채꼴형태로 상대석을 살짝 덮고 있다.



插圖15. 慶北大學校石造毘盧舍那佛坐像

해 結構한 것으로 전형적인 地方특유의 彫刻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7) 慶北龜尾市善山山動初等學校石造如來佛坐像(9세기. 불상 높이 190cm. 경북 선산 산동초등학교.)

구미 선산 산동초등학교에 모셔진 이 佛像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불상이 모셔진 이곳은 학교정원으로 活用되고 있는데 주변을 조사해보면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초석들이 發見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당시 절터임을 알 수 있다. 學校가 건립되면서 가람 전체를 훼손시켜 버렸고, 당시 대응전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두부가 탈락된 채 신체만 남아 있다. 조각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경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가 탈락된 자리에는 鐵心を 꿰은 흔적이 너비4cm, 지름8cm의 홈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三道부분에는 비교적 편평한데 홈의 위치가 지나치게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조각과정에서



插圖16. 龜尾善山山動初等學校石造如來佛坐像

두부와 신부를 각각 따로 조각해서인지 완성당시 불상은 다소 어색한 느낌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⁸³⁾ 법의는 통견에 위풍당당한 모습이 9세기에 조성된 전형적인

83) 佛像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分業化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본인이 앞서 언급한 적이 있다. 특히 彫刻當時 佛像의 각 부위마다 匠人들이 분담을 맡아 彫刻했을 것으로 판

佛像의 모습이다.⁸⁴⁾

(8) 國立大邱博物館石造如來佛坐像(9세기. 불상 높이 60cm. 국립대구 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에 모셔진 이 佛像을 觀察해 보면 축과 철심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三道와 목 부분이 그의 편평하고 완벽하게 남아 있으며, 어느 한곳 훼손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면 두부를 어떻게 결구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두부를 아무런 결구도 없이 올려놓은 상태라면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어떠한 접착재를 사용했을까하는 여러가지의 의문이 생긴다. 물론



插圖17. 國立大邱博物館石造如來佛坐像

단 되는데 이 때 結構과정에서 頭部와 身部の 위치가 어긋났기 때문에 흠의 위치가 뒤쪽으로 약간 치우쳐 졌는 것 같다.

84) 彫刻手法이 觀龍寺龍船臺石造如來佛坐像과 手法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法衣는 通肩인데 얇고 옷주름이 굵게 표현한 것과 도식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禮拜의 대상인 만큼 잦은 이동이 없다 할 지라도 고정만은 시켜야 한다. 이 때 접착제는 생석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유황을 들수가 있겠다. 얼마 전 까지도 文化財보수에는 유황이 사용되었는데 즉 鐵心을 쫓을 경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유황이 사용됐고 지금까지도 부속재료로 계속사용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유황과 생석회 중 어느 것이 접착력이 높을까, 아니면 9세기경 造成된 石塔을 실례를 들자면 탑신부위에 옥개석을 그냥 올려놓듯이 두부만 따로 올려놓았을 가능성도 있다.⁸⁵⁾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研究의 課題이다. 분명 언급할 것은 생석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접착보다는 두부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현재 이 불상의 목 부분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검은 색깔을 띠고 있다. 물론 풍우로 인한 여파도 있겠지만 유황을 사용해 접착을 시킬 경우 접착부위가 검은 색깔로 변한다⁸⁶⁾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인 만큼 깊은 研究가 요구된다.

이 불상은 경주남산 심수곡 석조여래불좌상의 조각수법과 비슷한 점을 엿 볼 수 있다. 우견편단에 의습표현이 강하게 표현했고 다소 도식화된 모습으로 보아 9세기 作品으로 판단된다

(9) 高靈石造如來佛坐像 및 石造毘盧舍那佛坐像(10세기. 불상 높이 64-77cm. 경북 고령 지산동.)

별조제작기법이 慶北에 이어 경남접경지역까지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佛像이 바로 지산면 공원에 모셔진 4구의 불상들이다. 그중 2구는 석가여래불좌상이고, 2구는 비로자나불상이다. 또한 4구의 불상 중 1구는 두부가 올려져 있으나 조성당시 두부는 아닌 것 같고 3구는 두부가 탈락되어 있다. 이들 불상들은

85) 印度國立博物館 제2전시실에 전시된 굽타시대의 사르나트(5세기. 사르나트 출토) 樣式인 頭部를 觀察해보면 頭部만 따로 彫刻해 올려놓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마투라 조각의 頭部(2세기) 마찬가지로 結構를 하지 않은 채 올려놓은 圖像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일보, 『세계의 박물관19 인도 국립박물관』, 1988. pp.46-98.

86) 유황을 끓여 접착을 시킬 경우 접착부위가 검게 변하면서 石材가 오염되어 외관을 해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鐵心을 박아 보수를 할 경우 접합부위는 더욱 검게 변한다는 것을 文化財 보수업계들의 통상적인 주장이다.(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학습교재 보존학 p.17 참조).

어떠한 연유로 이곳에 모셔지게된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불상을 중심으로 주변 지표조사를 펼친 결과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편 등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절터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구의 불상들도 寺刹이 건립되던 시기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插圖18. 慶南高靈石造如來佛坐像 및 石造毘盧舍那佛坐像

한편 대부분의 불상들이 훼손이 심해 形象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磨滅이 심하나 樣式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4구의 불상 중 3구는 두부가 탈락됐고, 1구는 두부가 올려져 있으나 본래 짝이 아닌 것 같다. 시기적으로 불교조각이 쇠퇴기를 맞아서 그런지 당당한 모습과 活力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구 불상전체가 조성당시부터 모두 철심을 사용해 頭部를 結構한 것으로 판단된다. 홈의 너비는 4cm정도이고 지름은 시멘트로 때워져 있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두부를 결구한 목의 각도는 5-7°정도를 유지하고 있다.⁸⁷⁾

87) 이들 佛像들의 특징이라면 조각과정에서 三道를 전혀 새기지 않은 상태에서 頭部를 結構한 것 같다. 또한 彫刻手法이 같은 시기에 造成된 다른 佛像에 비해 技術力이 다소 뒤떨어지고 있어 중도에 포기한 듯 未完成 作品일 수도 있다. 그러나 頭部는 4구의 佛

(10) 忠南論山灌燭寺彌勒菩薩立像(10세기. 높이 5.3m. 보물 제508호.
충남 논산.)

高麗時代에 접어들어서는 불상들이 아담하고 비교적 작게 조성이 되나 이와는 정반대로 대형마애불들이 造成되기 시작한다.⁸⁸⁾ 용미리 마애대불을 비롯, 중원미륵리 마애대불, 북한산 구기리 마애대불, 안동 이천동 마애대불 등 수많은 大佛들이 造成되는데 그 실례로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을 들 수 있겠다. 이 불상의 높이는



插圖19. 忠南論山灌燭寺彌勒菩薩立像

像 전체가 鐵心을 사용해 結構한 것으로 판단된다.

- 88) 高麗時代에 접어들어서도 彫刻活動은 계속되지만 신흥종파의 여파로 彫刻의 精神과 技術力이 따르지 못했고 특히 大作을 造成하기는 했지만 생각만큼의 우수한 作品을 만들지 못했다. 때문에 佛像의 樣式의 표현은 둔화됐고, 특히 佛像을 경시하는 기운이 감돌면서 彫刻은 더욱 퇴락해 가는 양상을 띄게 된다.

약18m나 되는데, 한 개의 돌로 彫刻한 것이 아니고 4개의 화강암을 이용해 4등분으로 나누어 조각한 뒤 결구한 것 같다. 즉 신부와 두부·보관을 각각 따로 조각한 것이다.⁸⁹⁾

이러한 조각기법은 상모면 미륵대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즉, 별조제작기법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菩薩의 두부와 원통형 보관은 대조사 미륵보살상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축을 깎아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짝다.

한편 佛像의 전체적인 면에서 觀察해 보면 도식적이고 비사실적인 요소를 받을 수 있는 作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얼굴이 토속적인 용모를 지니고 있어 고대조각사에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⁹⁰⁾

(11) 安東泥川東磨崖石佛像(11세기. 전체 높이 1,238cm. 머리 높이 243cm. 보물 제 48호. 경북 안동 이천동.)

일명 제비원불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佛像은 조성당시부터 철심을 사용해 두부를 결구한 사실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인지 頭部를 연결한 목 주위에 녹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하단부위 까지 흘러나와 오염이 된 것을 볼 수 있다.⁹¹⁾ 그런데 앞서 언급해듯이 불상조각과정에서는 분명 얼굴만 따로 조각하는 전문 匠人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비원 불상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불상의 신체부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습의 표현은 그야말로 形式的인 면이 지나치게 도식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 조각가에 의해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 얼굴은 분명 전문 丈人에 맡겨져 완성되었을 것이고,⁹²⁾ 신체부위는 전문조각가가 아닌 그 밑에서 작업하는

89) 김삼룡, 『미륵불』, 대원사, 1998. p.62.

90) 黃壽永,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89. p.409.

91)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석조물 보수과정에서 鐵心을 쫓은 자리에 유황을 끓여 넣을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녹물이 흘러나오고 여기에다 유황성분까지 流出되면 석조물 주위가 심하게 오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가 있다.

92) 掘佛寺址 四面石佛像의 남면 藥師如來佛과 南山 冷谷 磨崖佛像들을 觀察해보면 얼굴표정은 사실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단부위로 내려올수록 선각에 가깝고 도식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彫刻家 밑에서 여럿이서 분담을 맡아 彫刻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때도 本尊의 얼굴만 따로 彫刻하는 전문 匠人이 있었어 가능했다고 생각

미숙련공들에 맡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佛像은 경주 남산 약수곡 마애대불에서 철심을 사용한 두부결구방식이 이곳까지 계승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插圖20. 安東泥川東磨崖石佛像

(12) 忠南大鳥寺石造菩薩立像(11세기. 높이 10m. 보물 제217호. 충남 부여.)

2년전 충남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보존처리과정에서⁹³⁾ 굴불사지 사면석불상 남면 아미타삼존불상에서 축을 이용해 두부와 보관을 결구방식이 이곳 忠南지역 大佛에서도 조각기법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대표적인 作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불상의 머리 위에는 약 90cm에 달하는 금동아미타여래입상이 안치되었으나 현재는 없다.⁹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살이

된다.

93) 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앞의 보고서, pp.51-65.

94) 黃壽永 교수는 石佛정상부분에 金銅阿彌陀如來立像이 있었으나 日帝時代에 일본인들이

마 위에 올려진 원통형보관 뒷면 시멘트 몰타르체거 과정에서 축을 깎아 寶冠을 結構 한 사실이 밝혀져 축을 사용한 조각기법이 고려시대까지 계승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⁹⁵⁾ 한편 축을 다듬어 결구한 방식은 굴불사지 서면 아미타삼존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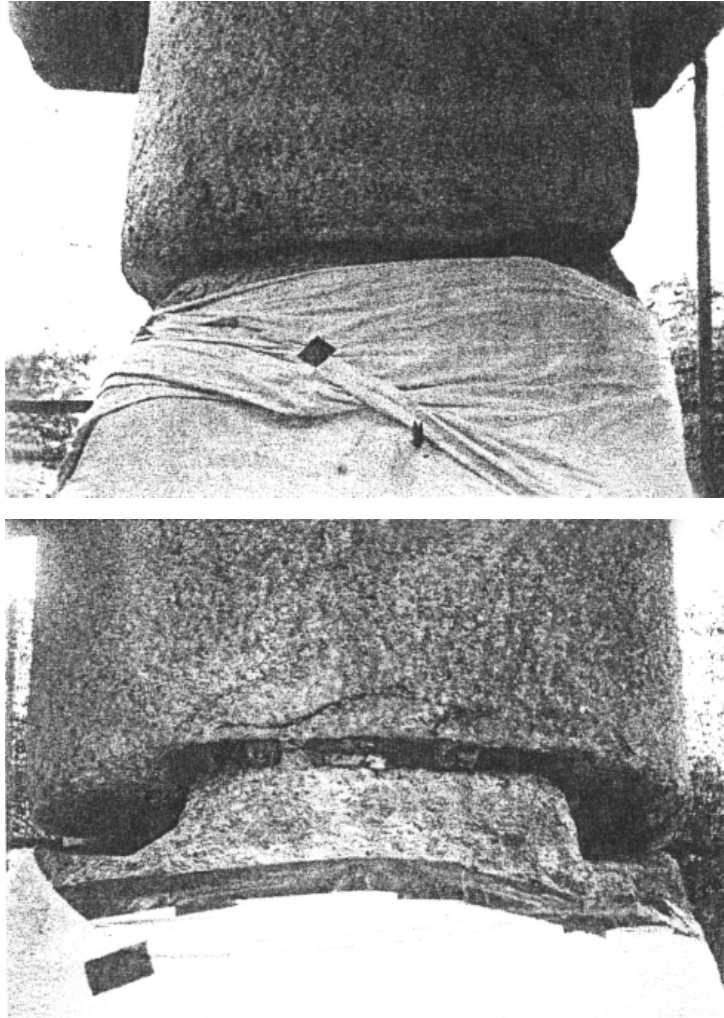


插圖21. 忠南大鳥寺石造菩薩立像

綿布를 던져 그것을 타고 올라 간 뒤 佛像을 떼어갔으며 현재는 3개의 구멍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 95) 그런데 工事報告書에 의하면 寶冠의 축이 中央부분이 아닌 뒤쪽 면에 다듬어 結構한 것이 특이하다. 통상적으로 축은 이마 中央부분에 있어야 하나 이 菩薩의 경우 그렇지 않다. 때문에 뒤쪽 寶冠의 면이 약간 앞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조각방식이 그의 同一하나 대조사 미륵보살의 경우 大佛인 만큼 측은 크고 사각형으로 다듬은 것이 특이하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 할 때 앞서 언급한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상과 중원 미륵사지 미륵불입상도 축을 이용해 두부와 보관을 결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菩薩의 얼굴은 四角形에 가까우며 풍만 한대 비해 이목구비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어깨에는 天衣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다.

(13) 京畿道波州龍尾里磨崖石佛立像(10세기. 불상 높이 1740cm. 우측상 머리높이 245cm. 좌측상 높이 236cm. 보물 제 93호. 경기도 파주.)

이 佛像은 한 개의 바위를 신체로 삼고 상단부 에는 2구의 보살두부를 올려놓았는데 보관은 원형과 사각형의 보관을 썼었다.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한 도상이다, 뿐만 아니라 조각과정도 독특한 방식을 취했다. 바위 위에 삼도를 따로 彫刻해 올려놓았고 그 위에 또 두부와 보관을 올려놓은 방식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한 도상이다.⁹⁶⁾

본인은 이 불상을 주시하며 국립대구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석조여래불좌상이 떠오른다. 즉, 궁금하게 여겨왔던 두부결구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된 듯하다. 마애불상의 목 부분을 觀察해 보면 그의 완벽할 정도로 깨끗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조성과정에서 철심에 유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그렇다면 축을 이용해 두부를 결구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된다.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은 철심은 물론 축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면만 고른 뒤 마치 돌을 쌓듯 그냥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낫다고 본다.

즉, 쌓은 돌의 무게에 의해 자연적으로 깃눌려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탈락될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박물관에 모셔진 석조여래좌상도 두부를 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있다.⁹⁷⁾

96) 三道彫刻을 자세히 觀察해 보면 마치 접시형처럼 彫刻해 頭部를 떠 받치고 있으며, 寶冠은 따로 조각해 이마를 살짝 덮는 듯하게 彫刻한 뒤 안전하게 올려놓은 모습이 흥미롭다.

97) 製作技法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研究가 있어야겠다. 특히 統一新羅時代의 佛像彫刻樣式에 대해서는 다소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製作技法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들이 부족한 만큼 이에 따른 깊은 研究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얼굴은 四角形이고 눈과 입술이 두툼해 전형적인 高麗時代 樣式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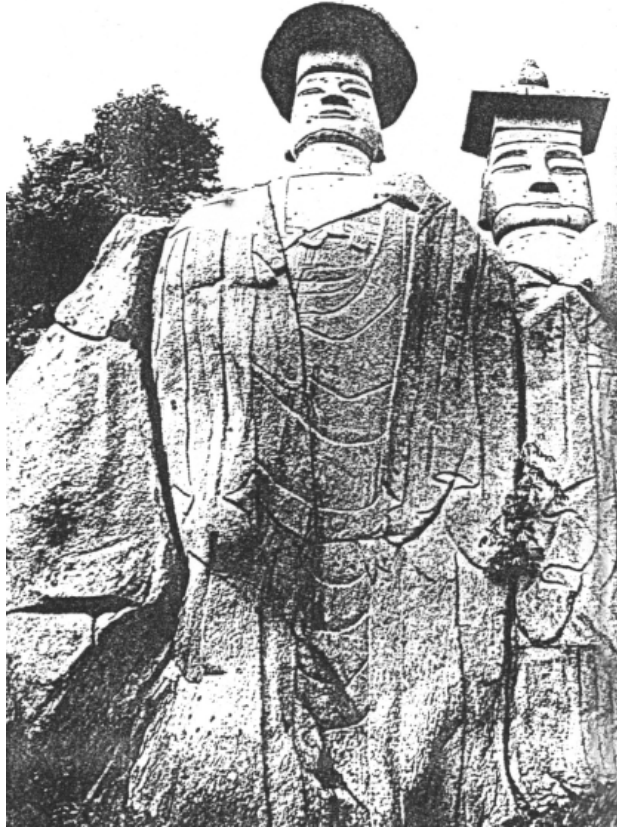


插圖22. 京畿道波州龍尾里磨崖石佛立像

VI. 結論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굴불사지 서면 아미타삼존불상은 축을 이용해 두부와 보관을 결구시켜 놓았고, 이같은 결구방식은 고려시대 후반까지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면불은 中國의 석굴사원이 건립되던 북위-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행했고 조각양식은 인도굽타기에서 성당시대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수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⁹⁸⁾ 그러나 단순히 외래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히 자국화 하면서 독특한 신라양식도 함께 탄생시켰다.

특히 서면 아미타본존불과 동면의 약사여래불상은 비교적 古式인 반면, 남면과 북면에 새긴 불상들은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잘룩한 허리하며 벌어진 어깨, 특히 신체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치마로 인해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景德王(742-765) 당시 정국이 안정되고 서양문물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만들어낸 조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1구의 보살이 때어진 남면의 경우 앞서 언급한바 대로 우리나라 화강암의 경우 강하고 비교적 굵은 입자로 形成되어 있어 정을 이용해 망치로 타격 한다면 조각조각 떨어질 確率이 높은 만큼 떼어가는 어렵다고 본다. 더우이 좌우 측과 中央부분에는 훼손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정자국이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이 쪼아져 있는 점등을 미뤄보아 떼어가기 위해서 보다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사면에 조각된 불상들은 어느 경전에 의해 조성이 되었다기 보다는 당시 신라인들의 현교불교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사면의 佛.보살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각수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면과 남·북면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彫刻 했기보다는 책임자의 주도 아래 각각 분담을 맡아 完成 한 것으로 보아지며, 이러한 경우도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체를 彫刻하기란 사실 어렵다고 여겨진다.⁹⁹⁾ 특히 서면의 아미타삼존의

98) 460년 경에 조성된 中國의 雲岡石窟寺院은 西域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왕권과의 밀착관계로 佛像의 頭部를 王으로 표현을 했다. 또한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면서 龍門石窟을 개착했고 뒤 이어 天龍山石窟 등이 造成됐다.

좌·우협시 보살상의 경우 彫像을 비교하여 볼 때 사면석불이 발견된 이후에 별도로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서면의 아미타삼존불의 조각수법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본존은 자연암석 상단부위에 축을 만들어 두부를 올려놓았고, 좌측 관음보살상도 本尊과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 축을 만들어 그 위에 寶冠을 올려놓았다. 세지보살상 역시 얼굴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형상은 알 수 없지만 보관을 별도로 조각해 결구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서면 아미타삼존의 조각수법은 전례의 불상조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별조제작방식이 새롭게 채용된 선구적인 예이다. 이처럼 축을 이용해 결구하는 방식은 이후 作品들에 계승되었는데 이 방법 이외에도 후대에 이르면 일부 불상들의 경우 삼도부분에 홈을 낸 뒤 철심을 꽂아 결구한 佛像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실례가 경주남산 약수곡정상 부근에 있는 마애대불입상이다. 이 불상의 두부결구방식은 축을 이용하지 않고 신체로 삼은 암석 정상부에 홈을 낸 뒤 鐵心을 꽂아 두부를 결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주남산 냉곡 석조여래좌상 역시 두부를 올리기 위해 축을 이용했지만 광배결구는 두께5cm, 길이10cm 가량의 철심을 이용해 완성한 흔적을 어렵게나마 찾을 수가 있었다.(圖44) 또한 안동 이천동 제비원 마애불상의 경우도 두부를 철심을 사용해 결구하였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알려진 내용이다.(圖45) 따라서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굴불사지 사면석불에서 시작된 별조제작방식이 축 결구방식에 이어 철심을 이용해 결구하는 방식도 함께 유행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홈을 낸 흔적에 대해 두부결구목적보다는 봉안물을 안치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높이가 860cm에 달하는 대불 정상부의 홈은 폭 7cm에 깊이 10cm로 협소한 홈에다 불구 또는 불경을 봉안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奉安물의 납입설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99) 실제 9세기에 접어들면서 각 地方마다 禪宗이 신흥종파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佛像이 제작되고, 특히 경부북부지역인 소백산과 일부사찰에서는 어수선한 難局을 佛教를 이용해 타개하고자하는 방안에서도 많은 佛像이 造成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상은 그 지역의 山神에 대한 제사 기능 역할을 위해서도 선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공급이 따르지 못하므로 시간단축을 위해 分業化로 전환되면서 別彫 彫刻方式을 도입한 것으로 본다.

만약 유물을 봉안했다라면 결구 된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단 시일 내 훼손될 소지가 충분한 만큼 이는 두부를 결구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統一新羅당시 석조불상에 유물을 봉안한 실례를 들자면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절터에 모셔진 석조여래불좌상을 들 수 가 있다. 불상의 엉덩이 밑부분에는 너비 40cm. 폭82cm에 달하는 반달형 홈이 인위적으로 파여져 있다. 즉, 유물을 봉안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圖46-1, 46-2)¹⁰⁰⁾

한편 홈과 축을 사용한 결구방식이 병행하면서 당시 경주남산일대에서는 별조 제작기법을 이용한 불상들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사찰건립이 성행했던 경주 남산 미륵곡을 비롯 약수곡, 용장곡, 냉곡 등지에는 두부를 결구한 불상들이 흔히 볼 수 있었고, 이후 고려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주로 대불에 많이 적용이 되어 왔던 것 같다. 특히 충남 부여 대조사 보살상의 경우 보존처리과정에서 이미 축을 사용해 보관을 결구한 흔적을 확인 할 수 있었다.(圖47-1, 47-2) 즉, 경주에서 出發한 별조제작기법이 이곳 忠南지역까지 계승이 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양상을 띄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중앙귀족들의 치열한 왕위계승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호족세력들의 난립으로 인해 社會가 안정을 잃고 그 원인으로 조형물들이 樣式的으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에서는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곳곳에 寺刹이 건립되고 지방특유의 조각양식이 유행했고, 특히 불상은 山神에 대한 제사용으로도 일부 이용되면서 별조제작기법을 이용한 제작활동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중앙에서 활동하던 조각가들이 활동영역을 지방으로까지 폭을 넓히면서 양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특유의 조각양식을 창출해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조제작기법의 탄생은 예배의 대상인 불상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작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분업화로 전환된 것 같다. 즉 한 조각가 밑에서 여러이서 분담을 맡아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섬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彫刻할 수 있다는 것과 특히 운반하기에 용의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별조제작기법을 선택한 것 같다.

100) 안계리사지 佛像 뿐만아니라 단석산 石造如來佛坐像과 석남사 毘盧舍那佛坐像도 엉덩이 부분에 홈을 파 遺物을 奉安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굴불사지 사면 석불상에서 출발된 별조제작기법은 경주남산지역에 집중되다가 그 뒤 新羅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던 대구-선산-합천-예천-영주-춘천지역 등 전국 각 지방도시로 점진적으로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목이 잘린 石造佛像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몽고군 침입과 임진왜란 등 인위적인 훼손만 생각해 왔을 뿐 별조제작기법으로 인해 두부가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또한 불상조각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얼굴이다. 따라서 8세기경 中央에서 活動하던 조각가들 중에는 분명 얼굴만 따로 조각하는 전문 匠人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해 별조제작기법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짧은 論考를 작성하면서 통해 느낀 점을 피력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각사 연구는 양식적인 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별조제작기법에 대해서는 研究成果가 거의 없었고, 특히 당시 제작자들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의도하였던 만큼의 심층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논고가 부족한 점이 많아 彫刻史研究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彫刻史研究의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램은 없다.

參考文獻

1. 基本史料

『三國遺事』

2. 著書

-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일조각, 1988.
_____, 『한국조각사 논저이해』, 시공사, 2000.
김원룡, 『한국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0.
_____, 『한국미술사연구』, 일지사, 1987.
김삼룡, 『미륵불』, 대원사, 1998.
姜友邦,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_____,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곽동석, 『금동불』, 예경, 2000.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4.
_____, 『韓國美術의 形式』, 한.언, 1997.
_____, 『마애불』, 대원사, 1998.
朴南守, 『新羅手工業史』, 新書苑, 1996.
윤경렬,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불지사, 1993.
이민수, 『삼국유사』, 을류문화사.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이다』, 다홀미디어, 2001.
장충식, 『한국의 불상』, 동국대학교부설 역경원, 1983.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寺, 1976.
_____, 『석불』, 대원사, 2000.
黃壽永, 『韓國佛像의 研究』, 三和出版社, 1973.
_____, 『韓國의 佛像』, 문예출판사, 1989.
_____, 『석굴암』, 예경산업사, 1987.

<가나다순>

3. 論文 및 資料

- 金昌鎬 「癸酉名 阿彌陀三尊佛碑像의 銘文」, 『新羅文化』 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1.
- 金理那, 「慶州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震檀學報, 1975.
- _____,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像彫刻樣式 -七世紀後半에서 八世紀中葉의 佛菩薩을 中心으로」 考古美術, 1982.
- _____, 「한국의 고대조각과 미의식」,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문고3 한국정신문화원, 1984.
- 강우방, 「선도산아미타삼존대불론」, 미술자료, 1977.
- _____, 「慶州掘佛寺址四面石佛 發掘調査報告書」, (博物館新聞118號), 1981.
- 고유섭, 『조선미술사료』, 고고미술자료, 제10집, 고고미술동인회, 1966,
- 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부여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기초공사 연구 보고서」, 2000.
-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展開와 七佛庵佛像彫刻의 研究」, 美術資料, 1980.
- _____,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南山塔谷磨崖佛)의 四方佛-新羅四方佛研究 韓國史研究會」, 1977.
-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 「掘佛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86.
- _____, 「백제사방불의 기원과 예산석주사방불의 연구」, 한국불교미술사론, 민족사, 1987.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 국보편, 상·중, 1976, 1968.
- _____, 우리나라의 文化財, 1972.
-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굴불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6.
- 박용숙, 「한국미술사론」, 일지사, 1975.
- 朴慶植, 「9世紀 新羅石造美術에 關한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歷史敎育專攻 博士學位論文.
- _____, 「신라 9세기 석조미술의 특성」, 『사학지』 24, 단국사학회, 1991.
- 新羅文化研究所, 「統一期の 新羅社會 研究」, 1987.
- 李順子, 「慶州地域 新羅彫刻의 美意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博士學位論文, 1992.

이기백, 『신라사회사상사연구』, 일조각.

_____,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이강식,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張忠植, 『錫杖寺址 出土遺物과 釋良志의 彫刻遺風』, 『新羅文化』, 3.4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87.

정영호, 『창원 불곡사 비로사나불』, 『고고미술』 61, 고고미술동인회, 1965.

_____, 『경북 영주지역 불교유적』, 『사학지』, 단국대사학회, 1971.

_____, 『통일신라시대의 석불』, 『고고미술』, 한국미술사학회.

진홍섭, 『선산 해평동 석조여래좌상』, 『고고미술』 30, 고고미술동인회, 1962.

황수영, 『통일신라시대의 철불』, 『고고미술』, 154·155合輯, 한국미술사학회.

<가나다순>